

# 朝鮮朝 經筵에서 仁祖의 讀書歷 考察\*

A Study on the Injo's Reading Career in the  
Gyeongyeon(經筵) of Joseon Dynasty

金 重 權 (Kim, Joong-gwon)\*\*

## ◁ 목 차 ▷

- |               |           |
|---------------|-----------|
| 1. 緒 言        | 4. 讀書沮害要因 |
| 2. 經筵에서의 讀書行態 | 5. 結 言    |
| 3. 讀書回數       |           |

## < 초 목 >

본 연구에서는 조선조 16대 왕 仁祖의 독서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實錄을 통해 재위 27년간 그의 독서행태를 일정별로 살펴보았다. 인조는 광해군을 축출하고 29세에 왕위에 올라 경연제도를 재정비했으나 국내외 혼란으로 독서에 거의 관심이 없는 왕이었다. 당시 그가 읽었던 책을 보면 『論語』, 『大學』, 『孟子』, 『中庸』, 『書傳』, 『詩傳』, 『大學衍義』가 전부였다. 더구나 『大學衍義』는 석강이나 야대를 거의 하지 않아 완독하지 못했다. 독서 회수는 조강 101, 주강 453, 석강 및 야대 30회, 소대 98회로 거의 독서를 하지 않았다. 재위 17년 이후부터는 한 번도 경연이 없어서 경연관의 존재는 형식에 불과했다. 그는 죽는 날까지 국내문제, 국외문제, 신병상의 문제 등으로 독서를 회피하였다. 결과적으로 광해군에 이어 인조 독서력도 역대 왕 중 최하위의 독서력을 나타냈다.

要語: 經筵, 仁祖, 『論語』, 『大學』, 『孟子』, 『中庸』, 『書傳』, 『詩傳』, 『大學衍義』

\* 본 논문은 2015학년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광주대학교 인문사회대 문헌정보학과 교수(jkkim@gwangju.ac.kr)

접수일: 2015년 6월 3일 최초심사일: 2015년 6월 15일 심사완료일: 2015년 6월 25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jo's reading career in the Gyeongyeon(經筵) of Joseon Dynasty.

To investigate the Silrog (the book which records the history of Korea), it knew the reading material, a reading act and attitude which he read in the Crown prince time.

Major findings are as the follows;

The reading materials that he read for 27years were 7 titles, that is, *Noneo*(論語), *Daehag*(大學), *Maengja*(孟子), *Jungyong*(中庸), *Seogyeong*(書經), *Sigyeong*(詩經) and *Daehagyeonui*(大學衍義).

He was the king who disliked reading, moreover from 1623 to 1649, when he was in power, he was not almost present at the reading discussion of the Gyeongyeon(經筵).

The number of times that he participated to the Jogang's reading discussion was 101, and the Jugang(晝講) was 453, Seoggang(夕講) and Yadae(夜對) was 30, Sodae(召對) was 98. He was the king who disliked reading, moreover he was not almost present at the reading discussion of the Gyeongyeon(經筵) at the end of long-term seizure of power.

As a result, the analysis showed that Injo's desire to reading was much lower than the late king's reading career.

Key words: Gyeongyeon(經筵), Injo(仁祖), *Noneo*(論語), *Daehag*(大學), *Maengja*(孟子), *Jungyong*(中庸), *Seogyeong*(書經), *Sigyeong*(詩經), *Daehagyeonui*(大學衍義)

## 1. 緒言

능양군은 선조의 4째부인 인빈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5남 정원군(원종 1580-1619)의 아들로 이름은 侁이다. 광해군과는 이복 조카 사이가 된다. 그는 동생 능창군이 1615년 광해군에 의해 죽게 되자 앙심을 품고 서인들과 함께 1623년 3월 12일 밤 반정을 도모하여 29세에 조선 16대 왕위에 오른 인물이다. 왕권을 잡으면서 대북파를 대거 숙청하고 서인과 남인을 등용하여 왕권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외교적으로는 친명정책을 표방하였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듯했으나 1624년 이괄이 난을 일으켜 한양으로 들어오자 인조가 한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3년 후인 1627년에는 후금이 3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한 정묘호란이 일어났으며, 1636년에는 후금이 청으로 국호를 바꾼 뒤 12만 대군으로 조선을 침략하여 45일 만에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수치를 당했으며,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을 청에 볼모로 보내게 되었다. 1645년 볼모로 잡혀갔다 돌아온 소현세자의 갑작스런 죽음 등 가족들과 불편한 관계 등이 연속되면서 1649년 5월까지 26년 2개월간의 왕권을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적인 당시 상황에서 인조는 경연제도를 재정비한 뒤 자신의 수양과 조선의 왕권강화를 위해 어느 정도의 독서를 했는지 알 수 없다. 더구나 그는 반정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서연을 통하여 세자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또한 체계적인 독서를 실시하지 못했음을 직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조의 경연과 경연에서 읽었던 책, 독서행태 등을 집권년도 별로 조사하고, 독서를 저해한 요인들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의 독서력을 밝혀보고자 한다.

## 2. 經筵에서의 讀書行態

인조는 반정에 성공하여 왕권을 재정비하면서 광해군 때 제구실을 하지 못한

경연제도를 부활하였다. 재위 27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독서했는지 일지형식으로 그의 독서행태를 조사해보고자 한다.

1623년 3월 13일 광해군을 축출하고 왕위에 올라 정신없던 차에 李德澗은 이를 후인 3월 15일에 경연에서 문신들을 매일 만나 독서하고 조정의 득실과 국가의 치란을 강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sup> 그리고 일주일 뒤 3월 22일 홍문관은 경연에서 읽어야 할 책으로 조강과 주장과목으로 『論語』, 석강은 『大學衍義』를 선정하였다.<sup>2)</sup> 반정을 일으킨 지 며칠 되지도 않았으며, 또한 마음의 안정도 되지 않았을 것인데 책을 읽으라 한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당시 영의정이원익은 경연의 중요성을 인조에게 들려준다.

“신이 듣건대 근일 경연을 열고자 하여 강론할 책을 하문하셨다고 하니, 신이 그지없이 기쁩니다. 성상의 학문이 고명하시나 만약 자주 경연을 열지 않으면 좋은 말을 들을 길이 없고 또 인재를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민간의 질고와 국가의 형정에 있어서도 모두 한 자리에서 강론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임금들이 비록 전쟁과 혼란 중 일지라도 학문의 강론을 폐하지 않았던 것은 실로 이 때문입니다.”<sup>3)</sup>

위 글은 경연이란 왕이 책을 읽어 자신을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하들과 국사를 논하는 의사소통의 자리가 되므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다.

따라서 인조는 경연제도를 재 정비한 뒤 조강, 주장, 석강, 야대, 소대 등으로 나누어 독서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경연에서 읽은 책도 시간대별로 선정하고, 경연에 도움을 줄 경연관들도 선발하였다.

경연관의 직제로는 성종 때와 같이 領事 3명(정1품)과 知經筵事 3명(정2품), 同知經筵事 3명(중2품), 參贊官(정3품) 등 당상관과, 侍講官(정4품), 侍讀官(정5

1) 『朝鮮王朝實錄』 仁祖 1年 3月 15日(乙巳) 卷1. 冊33. p.505.

2) 『朝鮮王朝實錄』 仁祖 1年 3月 22日(壬子) 卷1. 冊33. p.512.

3) 『朝鮮王朝實錄』 仁祖 1年 3月 22日(壬子) 卷1. 冊33. p.512. “臣聞近將開筵, 下問所講之書, 臣不勝喜悅。聖學雖已高明, 若不頻數開筵, 則善言無由而至, 人才從何而辨? 至於民間疾苦, 國家刑政, 莫不講論於一席, 故古之人君, 雖在干戈搶攘之中, 不廢講學者, 良以此也。”

품), 檢討官(정6품), 司經(정 7품), 說經(정8품)과 典經(정9품) 등 낭청으로 구분하였다. 당상관 중 영사는 삼정승(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겸하고, 지경연사와 동지경연사는 정2품과 종2품 중에서 각각 3명씩 임명하였으며, 정3품 참찬관은 홍문관 承旨와 副提學이 겸직하고 경연을 이끌도록 하였다. 낭청 중 정4품 시강관은 直提學, 典翰, 應敎, 副應敎가 겸하였으며, 시독관은 校理와 副校理, 검토관은 修撰과 副修撰이 겸하였다. 그리고 사경, 설경, 전경은 참외직으로 博士, 著作, 正字가 겸하였다. 그 밖에 성종때 시작된 특진관제도를 두고 2품 이상의 관리가 참여하여 독서토론과 정사를 논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 하에 처음으로 인조가 조강을 실시한 날은 3월 25일이었다. 반정을 도모한 날이 3월 12일이었으니까 13일만이었다. 그날 조강에서 『論語』를 읽었으며, 참여한 문신은 검토관 李敬輿(1585-1657), 지사 李廷龜(1564-1635), 대사헌 吳允謙(1559-1636), 특진관 張晩(1566-1629), 시독관 尹知敬(1584-인조12, 1634) 등이었다.<sup>4)</sup>

다음 날인 26일에는 ‘명광전’에서 『論語』를 읽었으며, 시독관 李敏求(1589-1670), 영상 李元翼(1547-1634), 특진관 李必榮, 정언 吳翻, 지평 趙廷虎, 지사 申欽 등이 참여하였다. 경연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인조는 책을 읽고도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이 거의 없었으며, 대신의 말도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혹평도 받았다.<sup>5)</sup> 그날 특진관 尹昉, 시독관 이민구 등과 함께 ‘명광전’에서 처음으로 주강을 실시하였다.

다음 날 27일에는 조강 장소를 ‘문정전’으로 바꾸어 『論語』를 읽었다. 이 자리에서 경연관의 자질 및 선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승지 閔聖徵: 경연관이 모두 經書에 밝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언하는 것이 모두 章句間의 말로서 의거에 해박하지 못합니다. 마땅히 경서에 밝고 행실이 좋은 사람을 택하여 고문에 대비해야 하겠습니까.

인조: 이들은 모두 당대에 선택된 사람들이다. 어찌 다시 이들보다 나은 자가 있겠는가.

4) 『朝鮮王朝實錄』 仁祖 1年 3月 25日(乙卯) 卷1. 冊33. p.515.

5) 『朝鮮王朝實錄』 仁祖 1年 3月 26日(丙辰) 卷1. 冊33. p.517.

헌납 李敬輿: 승지의 말이 타당치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 경서에 밝고 행실이 좋은 사람을 추천한다면 가합니다. 지금의 筵臣은 모두 일시의 극선입니다. 어찌 반드시 程子·朱子 같은 사람이라야만 經輻에 둘 수 있겠습니까.”<sup>6)</sup>

위의 문장에서 閔聖徵(1582-1647)은 문장만 읽고 해석하는 수준이므로 경연관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으나 인조와 李敬輿는 그런대로 쓸 만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다. 4월 3일에는 검토포관 趙希逸(1575-1638), 특진관 權昉 등과 함께 석강에서 『大學衍義』를 읽고 토론하였다.<sup>7)</sup> 석강과목으로 정해진 후 처음으로 독서한 것이다. 4일 조강, 9일 주장, 11일 조강, 12일 주장, 13일 석강, 22일 조강을 실시하였다. 22일 조강에서는 『論語』을 읽는 중 <富而無驕>의 부분에서 참찬관 鄭經世(1563-1633), 지경연 李廷龜 등이 인조에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sup>8)</sup> <富而無驕>는 『論語』第一 學而篇에, 子貢曰, “貧而無詔 富而無驕 何如.”부분으로 인조가 1개월이 넘도록 『論語』第一 學而篇을 완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 밖에 4월 23일, 25일, 27일 석강에서 특진관 柳公亮, 참찬관 閔聖徵 등과 함께 『大學衍義』를 읽었다. 이상으로 4월에 읽은 책은 조강, 주장은 『論語』 석강은 『大學衍義』였으며, 장소는 문정전이었다. 조강에 참여한 문신은 영의정 李元翼, 좌의정 鄭昌衍, 지사 金塗, 지경연 李廷龜, 특진관 徐渚, 李曙, 李貴, 尹知敬, 權昉, 李廷謙, 柳公亮, 검토포관 趙希逸, 趙誠立, 참찬관 閔聖徵, 시강관 尹知敬 등이었다.

5월에는 3일부터 주장을 시발점으로 『論語』를 읽었다. 당시 시독관 沈光世(1577-1624), 검토포관 趙誠立 등이 참여하였으며, 당시 沈光世는 인조에게 독서를 하고는 있으나 경연관이 겨우 글이나 읽고 뜻을 해석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독서에 능한 정경세, 김장생 등을 시강관으로 추천하였다. 이에 인조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경연에 참여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sup>9)</sup> 5월 4일 조강은 문정전에서 논어를(이원익, 오윤겸) 읽고 선왕에게 추상한 휘호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으

6) 『朝鮮王朝實錄』 仁祖 1年 3月 27日(丁巳) 卷1. 冊33. p.518.

7) 『朝鮮王朝實錄』 仁祖 1年 4月 3日(壬戌) 卷1. 冊33. p.520.

8) 『朝鮮王朝實錄』 仁祖 1年 4月 22日(辛巳) 卷1. 冊33. p.527.

9) 『朝鮮王朝實錄』 仁祖 1年 5月 3日(壬辰) 卷2. 冊33. p.529.

며, 5월 5일에는 조강에서 참찬관 정경세와 독서를 마치고 내수사의 폐단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sup>10)</sup> 5월 6일 주장에서는 참찬관 吳百齡과 함께 『論語』를 강하고, 홍문관에게 홍범과 李滉의 <聖學十圖>를 병풍에 써서 들이도록 명하였다.<sup>11)</sup> 7일에는 조강에서 우의정 尹昉, 특진관 李曙 등과 함께하였으며,<sup>12)</sup> 8일 석강에서는 장소를 崇文殿으로 바꾸어 참찬관 鄭經世와 함께 『大學衍義』를 읽었다. 정경세는 임금에게 『大學』과 『中庸』은 본래 『禮記』 속에 편입되어 있었는데 二程이 두 편을 뽑아내었다는 것과 誠意·正心·修身·齊家·治國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초학자들에게 중요한 책이라고 소개하였다.<sup>13)</sup> 10일에는 김장생이 경연에서 읽어야 할 책을 추천하였다. 추천과정에서 인조와 소통한 내용을 보면,

“김장생: 들건대 현재 『論語』를 강하고 계시다는데, 제 생각에는 『大學』만은 못하다고 여겨집니다. 원컨대 『論語』가 끝나면 바로 『大學』을 강하소서.  
 인조: 지금 『大學衍義』를 함께 강하고 있는데 『大學』과 어찌 다르겠는가?  
 김장생: 『大學衍義』는 『大學』에 비해서 절실하지 못할 듯합니다.  
 인조: 전에도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었다. 스스로 차례로 해나가겠다.  
 (박지계가 朱子書를 강할 것을 청하자)  
 김장생: 朱子書는 經書보다 못할 듯싶습니다. 소신의 의견으로는 『小學』이 옳고  
 룬과 관계된 책이니 이것이 절실할 듯싶습니다. 그리고 『心經』이나 『近思錄』도 먼저 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sup>14)</sup>

인조의 조부인 선조는 이황에게 『小學』을 읽은 뒤 『大學』을 읽도록 추천받은 바 있다. 『大學』은 건물과 같은 것이므로 『論語』와 『孟子』를 읽어 그 안을 채워야 한다고 했다.<sup>15)</sup> 그런데 인조는 『大學』 대신 『大學衍義』를, 그리고 『論語』로 시작하였다. 따라서 독서에 능통한 김장생은 인조의 독서자료로 순위가 잘못되었

10) 『朝鮮王朝實錄』 仁祖 1年 5月 5日(甲午) 卷2. 冊33. p.530.  
 11) 『朝鮮王朝實錄』 仁祖 1年 5月 6日(乙未) 卷2. 冊33. p.531.  
 12) 『朝鮮王朝實錄』 仁祖 1年 5月 7日(丙申) 卷2. 冊33. p.531.  
 13) 『朝鮮王朝實錄』 仁祖 1年 5月 8日(丁酉) 卷2. 冊33. p.533.  
 14) 『朝鮮王朝實錄』 仁祖 1年 5月 10日(己亥) 卷2. 冊33. p.533.  
 15) 『朝鮮王朝實錄』 宣祖 卽位年 11月 16日(丁卯) 卷1. 冊21. p.180.

음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大學』이나 『心經』, 『近思錄』 등을 추천한 것이다.

5월 11일 조강, 12일 주장, 15일엔 조강을 실시하였으며, 28일에는 주장에서 『論語』를 읽어야 하는데 석강과목인 『大學衍義』를 읽었다. 30일엔 주장에서 다시 『論語』를 읽었다.<sup>16)</sup> 따라서 5월에 읽은 책 역시 조강, 주장엔 『論語』였으며, 석강에는 『大學衍義』였다. 28일 하루만 『大學衍義』를 읽었는데, 거의 석강엔 『大學衍義』였다. 장소는 문정전이 주를 이루었으며, 8일 하루만 崇文殿에서 하였다. 참여한 경연관은 시독관 沈光世, 검토관 趙誠立, 참찬관 吳百齡, 鄭經世, 영경연 이원익, 오윤겸, 우의정 尹昉, 특진관 李曙, 李廷臣, 韓汝潁, 시강관 김장생, 尹知敬 등이었다. 6월에는 2일, 4일, 12일 등 3일간 주장에서 특진관 徐滄, 李時發, 知事 鄭暉, 참찬관 鄭經世 등이 참여한 가운데 『論語』를 읽었으며, 24일에는 석강에서 『大學衍義』를 시독관 尹知敬, 검토관 李敬輿와 함께 하였다. 23일에는 경연을 열어 독서하자는 왕의 명이 있었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홍문관: 응교 沈光世는 어제 패초하였으나 오지 않았고 전한 尹知敬 등도 병으로 집에 있는데, 지금 경연을 열라는 명이 있으니 모두 패초를 명하소서.

인조: 이처럼 심한 더위에 날마다 입시하자니 어찌 피곤하지 않겠는가. 불려서 오지 않으면 나라의 체면이 크게 손상된다. 차라리 경연을 좌탈지언정 모욕을 당하고 싶지는 않으니, 주강을 꼭 할 필요는 없다.”<sup>17)</sup>

위의 내용을 보면 당시 경연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왕이 경연을 열어 독서하고 싶다는데 경연관은 불참했으며, 신병을 구실로 집에 있던 신하를 부르자는데 왕은 날씨가 더워 그들의 안위를 생각하고, 또한 불려도 그들이 오지 않을 경우 나라의 체면이 손상된다하여 포기하고 말았다. 반정으로 왕이 된 사람이 마음이 약해서인지, 신하들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인조도 경연에서 독서하는 자체가 내심 싫어서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다음날

16) 『朝鮮王朝實錄』 仁祖 1年 5月 30日(己未) 卷2. 冊33. p.535.

17) 『朝鮮王朝實錄』 仁祖 1年 6月 23日(壬午) 卷2. 冊33. p.537.

사헌부의 건의에 따라 인조가 이들을 파직한 것을 보면 優柔不斷한 성격을 보이기도 하였다.

“사헌부: 근래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연을 열라는 명령이 벌써 내렸는데도 옥당의 관원들이 서로 미루면서 끝내 들어오지 않아 경연을 정지하게 되었으니 이와 같이 태만한 풍습은 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있는 본관의 관원을 먼저 파직시킨 뒤에 추고할 것을 명하소서.  
인조: 추고하라.”<sup>18)</sup>

7월에는 경연을 19일이나 열어 독서하였다. 당시 李睟光은 1623년(인조 1년) 7월 24일 경연에서 인조가 주장에서 『論語』를 강한 뒤에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을 소개한 바 있다. “현재 강론하는 『論語』·『大學衍義』가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近思錄』·『心經』·『性理大全』 등의 책보다는 못하니, 유신 중에서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늘 고문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하였다. 이는 인조의 학문하는 태도나 정사에 나타한 듯한 모습을 보이자 책을 교체하여, 임금의 마음을 처음과 같이 돌리려는 의도였음을 알 수 있다.<sup>19)</sup> 그러나 이날 추천받은 『近思錄』·『心經』 등의 책은 평생 읽지 못하였다.

윤10월 15일부터 읽고 있던 『論語』는 석강과목으로 변경하고, 조강과 주장에서는 『大學』을 읽기 시작하였으나<sup>20)</sup>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였다. 석강을 자주 실시하지 않는 인조는 11월 3일과 7일 『論語』를 이틀밖에 읽지 못했다. 결국은 『大學』을 다음 해인 1월 15일까지 읽고 다시 『論語』를 주장과목으로 바꾸었다. 1월 22, 23일 양일간 『論語』를 읽었으나 책이 준비되지 못하여 2월부터 3월 20일까지 휴강한 뒤 3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완독하였다. 『論語』를 읽다가 중단한 이유는 책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근거로 실록의 내용 중에 정경세와 인조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다.

18) 『朝鮮王朝實錄』 仁祖 1年 6月 24日(癸未) 卷2, 冊33, p.537.

19) 『朝鮮王朝實錄』 仁祖 1年 7月 24日(壬子) 卷2, 冊33, p.543.

20) 『朝鮮王朝實錄』 仁祖 1年 윤10月 15日(辛丑) 卷3, 冊33, p.558.

“정경세: 옛날 사람은 배 안에서도 『大學』을 강독하였습니다. 6~7건(件)의 『論語』를 지금 이미 모았으니, 이제 경연을 열 수 있습니다.  
인조: 해야 하겠다.”<sup>21)</sup>

인조 1년 윤10월 15일부터 읽기 시작한 『大學』은 이듬해인 인조 2년 1월 15일에 완독하고 다시 중단된 『論語』를 계속 읽었다. 동 16일엔 참찬관 정경세가 <格物致知> 분야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인조 1년(1623)에 읽은 책은 『論語』, 『大學』, 『大學衍義』였으며, 독서장소로 3월 26일 명광전, 8일 崇文殿을 이용하고 그 외에는 주로 문정전을 이용하였다.

인조 2년(1624) 경연에서의 독서일정을 보면, 1월 6일에 지사 吳允謙이 『大學』을 읽으면서 『或問』을 참고자료로 삼아 뜻을 깊이 생각토록 하였다.<sup>22)</sup>

1월에 독서한 날짜와 과목은 4, 5, 6, 10, 11, 14, 15일까지 ‘문정전’에서 『大學』, 22, 24일은 『論語』를 읽었다. 2월은 경연이 없었으며(이괄의 난으로 공주로 피신, 당시 인조 1년에 과직된 시독관 심광세는 인조의 피난지 부여로 가다가 병으로 사망), 3월부터는 장소를 ‘資政殿’으로 옮겨 21, 25, 26, 27일에 『論語』, 4월에는 4, 5, 9, 10, 16, 17, 18, 19, 25, 26, 27, 30일에 『論語』, 5월에는 6, 12, 13, 14, 15, 16, 17, 26, 27, 29일 등 10일간 주장이 실시되었고, 26일 단 하루 조강과 석강이 있었다. 석강과목으로는 『大學衍義』였다. 6월에는 2일 하루 『論語』를 강독하면서 지사 吳允謙이 1월 6일에 건의한 바 있는 『或問』을 읽도록 했으나 인조는 반응도 하지 않았다.<sup>23)</sup> 6월 6일에는 藥房에서 더위관계로 경연 중단을 건의하자 인조가 “학문의 도리는 촌음을 아껴야 하니, 덥다 하여 멈출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으나<sup>24)</sup> 실제 경연을 실시했다는 기록이 없다. 7월에는 7, 8, 13, 14, 16, 19, 21(조강), 23, 25, 28일, 8월에는 1, 2, 3, 4, 7(조강), 10, 17(야대), 26(조강), 27일(조강)을 실시하였다. 과목은 10일까지 『論語』를 완독하고, 26일부터 『孟子』를 선정하여 읽었다. 9월에는 1, 2, 6, 9, 10, 11, 14, 16, 17, 21, 24, 27, 30일까지

21) 『朝鮮王朝實錄』 仁祖 2年 3月 5日(己未) 卷5. 冊33. p.591.

22) 『朝鮮王朝實錄』 仁祖 2年 1月 6日(辛酉) 卷4. 冊33. p.569.

23) 『朝鮮王朝實錄』 仁祖 2年 6月 2日(甲申) 卷6. 冊33. p.623.

24) 『朝鮮王朝實錄』 仁祖 2年 6月 6日(戊子) 卷6. 冊33. p.624.

주강만 실시하였으며, 6월에 ‘문정전’에서 주강에 『孟子』를 읽으면서 오윤겸이 다시 『大學或問』을 추천하였으나 인조는 교정이 완료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루었다.<sup>25)</sup> 10월에는 3(조강), 11(조강), 12, 13(야대), 14, 15, 16, 20, 21(석강), 22, 23, 27일, 11월에는 1일 하루만 조강을, 2, 3, 4, 18, 19, 26일 모두 주강을 실시하였다. 12월에는 인조가 친히 連珠府夫人(인조의 생모)의 약수발을 든다는 이유로 경연이 중단되었다.<sup>26)</sup>

그 동안의 독서과정을 보면, 인조 1년 윤10월 15일부터 2년 1월 15일까지 읽어 왔던 『論語』를 중단하고 『大學』을 읽다가 다시 2년 1월 22일부터 『論語』를 읽어 8월 10일 완독하였다. 며칠간 휴식 후 8월 26일부터 『孟子』를 선정하여 독서에 들어갔다.

2년에 인조와 같이한 경연관은 특진관 李貴, 金尙容, 吳百齡, 李曙, 尹昉(좌상), 申欽(영사), 李睡光, 지사 吳允謙, 崔鳴吉, 鄭曄, 尹煌, 李昭漢, 鄭經世, 長維, 李廷龜, 徐洧, 金瑩, 鄭光績 참찬관 金德誠, 시강관 李植, 金長生, 兪伯曾, 시독관 李竣, 李時讓, 嚴惺 검토관 趙誠立 등이었다. 경연관 중 김장생(1548.7.8-1631.8.9)은 당시 공조참의(정3품)였으나 독서에 능통하다는 이유로 인조 1년에 특별히 추천 받은 인물이다. 그는栗谷 李珥의 제자로 독서를 좋아했으며, 독서할 때마다 반드시 의관을 정제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매일 經傳 등에 담겨 있는 뜻을 탐색하다 마음이 흡족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밤낮으로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해결했다고 한다.<sup>27)</sup>

인조 3년(1625)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경연에서 독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이었다. 월별 독서활동을 보면, 1월에 11, 14, 16, 17, 23, 25, 29일 등 7일, 2월에 5, 6, 12, 13, 14일 등 5일 모두 자정전에서 『맹자』를 읽었다. 3월에는 4, 6(조강), 7, 8, 9, 10, 11(조강), 12, 14, 16, 20, 21(조강), 22, 25, 26(조강), 27일 총 16일간 조강 4회과 주강 12회를 실시하였다. 그 사이 정언 李景奭이 대신, 연신, 양사, 특진관 외에 간관을 접견하도록 건의하여 수락을 받아냈으며,<sup>28)</sup> 3월 21일에 인조

25) 『朝鮮王朝實錄』 仁祖 2年 9月 6日(丁巳) 卷7. 冊33. p.640.

26) 『朝鮮王朝實錄』 仁祖 2年 12月 22日(壬寅) 卷7. 冊33. p.664.

27) 『朝鮮王朝實錄』 仁祖 9年(1631) 8月 9日(庚戌) 卷25. 冊34. p.440.

는 조강이 늦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원에 추궁하기도 했다.

“인조: 오늘 조강이 어찌하여 늦었는가?

정원: 대궐 문을 평소보다도 일찍 열어 대신 및 경연관들이 모두 제때에 들어왔는데, 단지 執義가 늦게 왔으므로 조금 늦었습니다.

인조: 臺官이 이처럼 태만하니 나랏일을 알 만하다.”<sup>29)</sup>

당시 인조는 조강에서 활발하게 독서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추궁한 것이다.

4월에는 4, 5, 9, 10, 21, 23, 24, 25, 26, 27, 28, 29, 30일 총 12일간 주장에서 『孟子』를 강독하였으며, 5월에는 4, 5, 7, 12, 13, 15, 16, 20, 27, 29일 총 10일간, 6월에는 19일과 23일 2회 조강을 실시하였다. 7월은 2, 5(조강), 12(조강), 13, 15(조강), 17, 20일(조강) 총 조강 4회, 주장 3회, 8월은 3(조강), 4, 6, 8(조강), 9, 11(조강, 석강), 14, 16, 20, 23일 총 11회로 조강 3회, 주장 7회, 석강 1회를 실시하였다. 9월에는 3, 4, 5, 14, 15(주강, 야대), 16, 19(조강, 주장, 석강), 20, 21, 25(조강), 26, 29일 총 12일간 『孟子』를 읽었다. 특히 15일에는 주장 뒤 야대를, 19일에는 조강, 주장, 석강 3회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15일 주장에서 『孟子』를 읽은 뒤 동지사 李睟光은 초에 소개했던 『近思錄』과 『心經』을 읽도록 인조에게 다시 추천하기도 했다.<sup>30)</sup> 10월은 1, 12, 14, 18, 19, 23, 25, 26일 총 8일을 ‘자정전’에서 주강을 실시하였으며, 11월은 18일 단 하루만 주강을 실시하고, 12월은 없었다. 그 원인은 인조의 모친인 啓運宮 仁獻王后(連珠府夫人; 1578.4.1-1626.1.14)의 병간호로 중단하였다.

인조 3년에 독서토론을 같이 했던 경연관은 영경연(정1품) 申欽, 尹昉, 지경연(정2품) 및 동지경연사(종2품)는 徐湑, 鄭經世, 金塗, 李廷龜, 吳允謙, 李睟光, 金尙容, 특진관(정, 종2품)으로 沈明世, 鄭廣敬, 沈悅, 徐湑, 李貴, 李曙, 張晚, 申景禎, 金蓋國, 金自點, 朴東善, 崔來吉, 李顯英, 嚴惺, 金塗, 참찬관(정3품)은 金壽賢,

28) 『朝鮮王朝實錄』 仁祖 3年(1625) 3月 17日(乙丑) 卷8. 冊33. p.689.

29) 『朝鮮王朝實錄』 仁祖 3年 3月 21日(己巳) 卷8. 冊33. p.690.

30) 『朝鮮王朝實錄』 仁祖 3年 9月 15日(庚申) 卷10. 冊34. p.31.

鄭廣敬, 崔鳴吉, 李植, 시강관(정4품)은 尹知敬, 시독관(정5품)은 羅萬甲, 宋象仁, 嚴惺, 尹順之, 검토회관(정6품) 權濤 등이며, 특별히 참외직인 司經(정7품) 任叔英도 참여하였다.

인조 4년(1626)에는 1월 14일 인조의 모친 계운궁이 갑자기 죽게 되자 장례관 계로 8월 9일까지 경연이 중단되었다. 경연이 오래도록 중단되자 6월 2일 도승지 李弘胄, 승정원 등에서 경연재개를 건의했으나 이뤄지지 못하고 9월부터 시작되었다. 9월에는 9, 12, 18, 20, 27, 29일 총 6일, 10월에는 3, 7, 10, 13일 총 4일, 11월은 22일 하루 자정전 마루에서 주강을 실시하였으며, 또 다시 11월부터 5년(1627) 8월 6일까지 仁獻王后 제사 및 여진족의 침략(정묘호란)으로 책을 읽지 못했다.

5년(1627) 들어 마음을 안정시킨 뒤 8월부터 독서를 시작하였다. 8월 7일, 9월 3, 5, 14, 16일까지 그 동안 읽어 왔던 『孟子』를 완독하였다. 2년 8월 26일에 시작하여 5년 8월 16일에 완독했으니 『孟子』 한 권 읽는데 3년이 걸린 셈이다. 10월엔 휴식하고, 11월 1일부터 독서자료를 『中庸』으로 하였으며, 2, 4일 3일간 주강을 실시하고, 17, 18, 22, 23일까지 4일간 소대하여 『中庸』을 읽었다. 12월엔 2일 주강 외에 정기적인 경연은 없었으나 5, 8, 10, 11, 16, 17, 19, 20일까지 소대를 실시하였다. 12월 11일 소대에서는 『中庸』 <哀公問政章>을 읽은 뒤 그 내용을 가지고 鄭經世 등과 오래도록 질의응답을 실시하였다. 질의응답 후 정경세는 인조가 날씨가 추운데 날마다 경연에 나와 독서하면 건강을 해칠까 염려되므로 3, 4일 간격으로 경연을 실시하자는 건의를 한 바 있으나 실제로 자주 이루어지지 않았다.<sup>31)</sup> 사실 당시 정상적인 경연이 아니라 보충수업격인 소대를 실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조 5년에는 휴식하는 날이 많고 경연 일수도 부족하여 상당히 독서량이 저조한 해였다.

6년(1628)에도 1월부터 허유 등 역모사건 등으로 7월 4일까지 경연이 없었다. 7월 들어 5, 12, 15일 주강, 27일 조강, 8월은 6일 주강에 『中庸』을 완독하고, 9월 27, 29 주강부터 『書傳』으로 독서를 시작하였다. 10월은 1일 조강, 2, 4, 9,

31) 『朝鮮王朝實錄』 仁祖 5年(1627) 12月 11日(甲辰) 卷17. 冊34. p.243.

15, 17일 5일간 주장, 19, 27일 소대. 11월에는 1일 소대, 6, 8일 주장, 17(소대), 19일(조강) 20, 23일 소대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0일에는 『書傳』의 <순전편>을 읽었다. 12월에는 22일 주장, 30일 소대로 거의 독서를 하지 못했다. 결국 인조 6년에는 『中庸』을 완독하고 『書傳』 독서를 시작한 한 해였으나 역모 사건 등으로 규칙적인 경연은 며칠 없었고 몇몇 유신들만 초대하여 소대하는 시간이 많았다.

7년에는 독서토론이 다른 해에 비해 자주 있었다. 1월 24일, 26일, 29일 3일간 소대에서 『書傳』 <대우모>를 읽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한 내용을 보면,

인조: 이 편의 말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실천하기가 어려운가?

참찬관 정경세: 도리를 어겨가면서 명예를 구하고 백성의 뜻을 거스리면서 자기 욕심만 따르는 것은 어진 임금이라면 물론 없는 일입니다. 다만 ‘걱정이 없을 때 미리 조심하라.’는 대목을 깊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다 마음을 쓴다면 어진이를 신임하여 직을 맡기고 간사한 무리를 멀리 하는 일은 모두 이로 미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검토관 李景曾: 신은 ‘어진이에게 임무를 맡겼으면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조: 그렇다. 걱정이 없을 때 미리 조심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허물이 없게 할 뿐이다.

정경세: 걱정이 없을 때 미리 조심하는 것이 바로 居敬窮理의 공부인 것입니다. 인물의 顯否나 일의 得失도 반드시 그 공부가 있는 다음에야 비로소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人欲을 天理로 오인하지 않을 자가 드물 것입니다.<sup>32)</sup>

2월은 21, 23, 27일 주장, 23일에는 『書傳』을 읽고 김상용과 不經과 고의 및 파실, 인재추천 등에 대해서 토론 한 바 있다.<sup>33)</sup> 7년 들어서 인조가 독서를 하고 경연관들과 토론하는 모습이 실록에 자주 나타나고 있다. 3월 들어서도 당시 경연 상황을 보면 4일 조강, 8일 주장, 11일 조강, 14, 16일 주장, 18일 조강, 19일 주장, 21일 조강, 27일 주장 등 다른 날보다 상당히 많은 회수를 보이고 있다. 3월 중 『書傳』의 독서토론 내용을 보면,

32) 『朝鮮王朝實錄』 仁祖 7年(1629) 1月 26日(壬午) 卷20. 冊34. p.314.

33) 『朝鮮王朝實錄』 仁祖 7年 2月 23日(己酉) 卷20. 冊34. p.316.

특진관 趙翼: 사람을 알아보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치하는 데 가장 큰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 편에서 ‘사람을 알아보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 달려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 알아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인조: 예로부터 국가의 흥쇠가 사람을 얼마나 알았느냐에 항상 달려 있었으니, 나라 다스리는 방법이 그보다 더 큰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어질지 못한 임금이라 하더라도 불초한 자를 등용하고자 하겠는가. 다만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領事 吳允謙: 대부분 임금의 뜻만 잘 받드는 자를 충성을 다한다 하고 바르게 간하는 자를 불충하다 하는데, 이는 다름이 아니라 사육에 가리여서 그런 것입니다.

인조: 三代 이후로 인재를 알아보아 임용이나 부리기를 잘했던 임금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참찬관 김상헌: 漢高祖는 임용하고서 신임을 못하였고, 오직 昭烈과 諸葛亮의 군신 사이만이 영원한 감명을 줄 것입니다.

인조: 경의 말이 옳기는 하다. 그러나 소열은 처음부터 제갈량의 대명성을 이미 듣고 있었으므로 것처럼 의기가 서로 맞았던 것은 당연하지만, 고조의 경우는 韓信·陳平을 한 번 보고도 임용하지 않았던가.(이하 생략)<sup>34)</sup>

4월 1일 조강, 3일, 8, 26, 28, 30일 주장, 윤4월 1일 조강, 3일 주장, 5일 조강, 9, 12, 15, 17, 19일 주장, 21일 조강, 22, 26일 주장, 윤4월 1일에는 조강에서 『書傳』을 읽은 뒤 우의정 이정구가 오랫동안 석강을 하지 않는 관계로 『大學衍義』와 『綱目』을 추천하였다.<sup>35)</sup> 5월 2, 6일 주장, 8, 12일 조강, 14, 26, 28일 주강을 실시하였으며, 6월부터 7월 6일까지는 경연을 정지하였다. 7월 7일 주장, 11, 12일 조강, 14, 16일 주장, 17일 조강, 23일 주장, 8월엔 단 7일과 27일 주강을 실시, 9월에는 6일 주장, 9, 16, 17, 19, 21일 소대, 10월 14일 주장, 16일 조강, 19, 25일 소대를 한 후 11월과 12월은 경연이 없었다.

7년 10월 19일 서전 <仲虺之誥>편을 읽고 ‘자정전’에서 검토관 吳搏, 시독관 金南重 등과 공과 덕에 관해서 토론, 당시 사신은 경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34) 『朝鮮王朝實錄』 仁祖 7年 3月 11日(丁卯) 卷20. 冊34. p.320.

35) 『朝鮮王朝實錄』 仁祖 7年 윤4月 1日(丙辰) 卷20. 冊34. p.324.

“국가가 경연을 설치한 뜻은 상하가 聖經과 賢傳에서 간절히 깨우치려 함이니, 법 삼아 행할 만한 일은 토론하고 강구하여 서로가 권장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근일의 筵臣들은 순서대로 책을 들고 들어가서 강한다는 것은 고작 몇 줄의 글을 해석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니, 하루에 세 번씩 경연을 한들 실지로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그 중에 吳燾만이 능히 차분히 강론하고 분석하여 깨우치니, 吳燾 같은 사람은 쉽사리 얻을 수 없을 사람이라 하여도 될 것이다.”<sup>36)</sup>

이는 경연관들의 형식적인 태도를 지적한 반면에 吳燾(1588-1634)의 실력을 인정해 주는 내용이다. 10월 19일 이후 휴강하고, 다시 25일 ‘자정전’에서 19일에 했던 내용 <仲虺之誥>에 대해 계속해서 김광혁, 오진 등과 토론을 벌였다.<sup>37)</sup>

8년 1월 10, 17, 20일 소대, 23, 25일 주장, 27일 조강, 28일 주장, 작년 11월과 12월에 날씨관계로 경연을 중단하자 8년 1월 10일 소대에서 『서전』을 읽은 후 부제학 李敬輿, 검토회 韓興一 등이 경연에서의 독서와 토론을 건의한 바 있다.<sup>38)</sup> 1월 27일엔 인조가 조강에서 영사 李廷龜, 지경연 李貴 등과 『서전』의 한 부분을 읽고 깨우치는 경우도 있었다. 실록에 보면,

“군자의 도는 괜히 그 말만 꾸미려 해서는 안 되고 실천해야 마땅하니, 군신 상하가 이 점을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篇 가운데, ‘심상하게 여기고 들으려 하지 않았다.[惟庸罔念聞]’고 하였다. 지금 아름다운 말들이 적지 않은데도 제대로 듣고 따르지 못하니, 내가 부끄럽게 여긴다.”(서전 5편 太甲 上 4章)<sup>39)</sup>

위 글에서 “王惟庸罔念聞”은 서전 제4권 <商書> 5편 太甲 上 4章에 나온 문장으로 6년 9월 27일부터 『서전』을 읽기 시작한 지 1년 4개월인데 <태갑편>도 다 읽지 못했다는 것은 독서의 속도가 너무 느림을 알 수 있다(『書傳』은 권1, 권2 虞書, 권3 夏書, 권4, 5 商書, 권6, 7, 8, 9, 10 周書로 구성됨). 1월 28일에도 주장에서 <태갑>의 내용으로 지사 洪瑞鳳, 참찬관 李敬輿, 검토회 蔡裕後, 검소와 사치에 대해서 논하였다.<sup>40)</sup> 2월에는 3일 주장, 11일 소대, 14일 주장, 18, 일

36) 『朝鮮王朝實錄』 仁祖 7年 10月 19日(庚午) 卷21. 冊34. p.351.

37) 『朝鮮王朝實錄』 仁祖 7年 10月 25日(丙子) 卷21. 冊34. p.352.

38) 『朝鮮王朝實錄』 仁祖 8年 1月 20日(庚子) 卷22. 冊34. p.360.

39) 『朝鮮王朝實錄』 仁祖 8年 1月 27日(丁未) 卷22. 冊34. p.362.

소대, 22일 주장, 24일 소대를 실시하였으며, 동월 24일 소대에서 『서전』의 내용으로 한 독서토론을 보면,

시독관 趙緯韓: 임금의 깊이 구궁 궁궐에 계시니, 어찌 아래의 정황을 상달하겠습니까. 따라서 반드시 엄숙한 위엄을 누르고 좋은 낫빛을 꾸며야만 下情을 전달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임금의 공통된 걱정거리는 바로 ‘나는 위대하고 남은 변변치 못하다.[自廣狹人]’고 여기는 데에 있었기 때문에, 伊尹이 이처럼 그 임금을 경계시킨 것입니다. 근래에 경연의 신료들이 아뢴 바가 아무리 비천하기 짝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어찌 답할 만한 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전하의 모습이 영결스럽고 굳센데다 아무 말씀도 않고 계시니, 下情이 어떻게 위에 전달되겠습니까. 이것이 이른바 自廣狹人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검토관 蔡裕後: 신들이 외람되어 경연에서 모시고 있는 지 이미 여러 날이 지났는데, 상께서는 한 번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니, 신이 조정을 물러나오고 나면 마치 무엇을 잃어 버린 것처럼 허전하기만 합니다. 또 성상을 모시고 있는데도 끝내 하문하지 않으시니, 부질없이 측근에서 모시는 반열에 끼어 있는 이 몸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인조: 자신의 견해가 고명해진 다음이라야 뜻을 캐어 물을 수 있는 법이다. 의심할 만한 곳이 있거든 筵臣들끼리 서로 논란해 보도록 하라. 自廣狹人에 대한 경계가 옛날부터 있어 왔고 또 이로 인해 나라를 잃은 역사의 교훈이 멀지 않은데도, 후세의 임금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결과를 면치 못했으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채유후: 인군이 반드시 聖學을 닦아 밝혀서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는 도량을 넓히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남을 따를 수 있게 된 다음에야 이런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이하 생략)<sup>41)</sup>

이와 같이 1, 2월에 독서토론을 자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월에는 16일 주장, 4월 1일 조강, 3일 주장, 11일 조강, 19일 주장, 25일 소대, 26일 주장, 5월 7일 주장 11일 조강, 14일, 16일, 19일 소대, 21일 주장, 26일, 29일 소대, 6월부터 7월 12일까지 더위 문제로 경연이 없었으며, 7월은 13일과 18일 이틀만 소대를 실시하였다. 8월에는 14일 소대, 19, 23, 25일 주장, 27일 소대, 29일 주장 등 번갈아 가며 독서하였으며, 이 달 19일 독서를 마치고 인조와 토론하는 중 崔有

40) 『朝鮮王朝實錄』 仁祖 8年 1月 28日(戊申) 卷22. 冊34. p.362.

41) 『朝鮮王朝實錄』 仁祖 8年 2月 24日(甲戌) 卷22. 冊34. p.365.

海, 辛啓榮이 명백하게 답변을 못하자 이귀가 이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즉, 신하로서 임금을 진실로 부모처럼 사랑한다면 주야로 사실을 고증하여 질문에 대비해야 하고, 만일 모른다면 물러가서 입을 다물고 묵묵히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sup>42)</sup> 동 23일에는 8년(1630) 8월 23일 주강에서 『서전』 <泰誓篇>을 읽고 토론한 주제는 <朋家作仇>(신하들이 봉당을 서로 원수가 된다는 것)였다.

인조: 紂王의 세대를 당해서 신하들이 봉당을 만드는 폐단이 있었는데 聖인이 나와서 옛 폐단을 혁신하여 새 왕조를 세웠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봉당은 水軍이 그 身役을 대대로 전해가는 것과 같은 점이 있으니, 어찌하여 이렇게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는가.

동지경연 金起宗: 만일 고통스럽다면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이를 연줄로 삼아 벼슬길에 나오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길 뿐입니다.

인조: 몸을 닦고 행실을 연마하면 쓰여질 수가 있는데 봉당을 일삼을 것이 뭐 있겠는가. 무릇 봉당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소인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용감스런 자들은 반드시 연줄을 통해서야 벼슬길에 나올 수 있겠지만 선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것을 하지 않더라도 어찌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김기중: 사람으로서 누가 기필코 봉당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단지 아들은 아버지에게 듣고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전해 받은 것을 연유하여 이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인조: 예로부터 봉당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옛날의 봉당은 선한 자는 군자의 당이 되었고 나쁜 자는 소인의 당이 되었을 뿐이었는데, 지금은 이와 다르니 진실로 개탄스럽다. 『서전』에도 ‘오직 皇帝라야 표준을 세울 수 있다.’고 했으니, 반드시 어진 임금이 나와야만이 이런 폐단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나처럼 아둔하고 용렬한 사람이야 어떻게 조정에서 봉당이 제거되기를 바라겠는가.<sup>43)</sup>

<泰誓篇>은 『書傳』 중 商書 다음 편인 권6 周書의 편명이다. 인조는 이 중 4번째 항목을 읽었던 것이다.<sup>44)</sup>

42) 『朝鮮王朝實錄』 仁祖 8年 8月 19日(丙寅) 卷23. 冊34. p.395.

43) 『朝鮮王朝實錄』 仁祖 8年 8月 23日(庚午) 卷23. 冊34. p.396.

44) “我聞吉人爲善 惟日不足, 凶人爲不善, 亦惟日不足, 今商王受力行無度, 播棄耜老, 昵比罪人, 淫酗肆虐, 臣下化之, 朋家作仇, 脅權相滅, 無辜籲天, 穢德彰聞”(내가 듣기에 길한 사람은 선을 행하되 날이 부족하고, 흉한 사람은 불선하되 또한 날이 부족하다. 지금 상왕인 受는 법도에 없는 일을 힘써 행하고, 노인을 버리고, 죄인과 친하게 지내며, 음탕하고 술주

9월에는 5일 주장, 12일 조강, 19일 야대, 소대, 21일 조강, 26, 27일 주장, 10월은 6일 주장, 7일 석강, 20, 23일 주장, 24일 소대, 25일 주장, 26일 소대, 30일 주장, 11월 1일 소대, 12월 25일 야대에서는 『大學衍義』를 강독하였다. 9월 19일에는 '흥정당'에서 『대학연의』로 야대를 하였다. 『大學衍義』를 읽은 뒤에 인조는 참석한 문신들과 회식을 하였는데, 그 장소에 참석한 인물은 승지 尹煌, 옥당의 李景曾, 崔有海, 假注書 李道長, 史官 申恂, 李海昌 등이었으며, 이들의 대화내용을 보면,

인조: (독서를 마치고 문신들이 물러가려 하자 小宦에게 주안상을 내오게 하였다.

인조가 먼저 큰 술잔으로 한 잔 한 다음, 소환을 시켜 문신들에게 술을 따르게 하였다. 소환이 荷葉杯에 술을 따라 윤희에게 주었다.)

윤희: 마실 수 없습니다.

인조: 술잔 잡은 모습을 보니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양하지 말라. (술잔이 4, 5순배 돈 뒤 최유해가 사양하면서)

崔有海: 혹시 실례할까 두렵습니다.

인조: 실례할들 무슨 손상될 것이 있겠는가. 다 마시도록 하라.

(또 한 순배가 돈 뒤에 좌우가 잔을 잡고 사양하였다)

인조: 전부터 야대할 때에는 반드시 양껏 마시기에 이르렀으니, 지금도 음식은 변변찮지만 모조로 취하도록 마시라.

최유해: 정신이 혼란해져서 엎어져 失儀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인조: 세종조 때는 술은 석 잔을 넘지 않았으므로 실례하는 데 이르지 않았으니 이는 진실로 본받아야 된다. 성종조 때에는 學士들이 취하여 엎어져 나아갈 수 없게 된 경우가 매우 많았었다고 하니, 또한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祖宗의 고사는 모두 본받을 만한 것이다.

(술이 일곱 순배를 돌아)

윤희가 사양하기를: 너무 심하게 취했으니 삼가 물러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조: 이번 순배만은 다 마시도록 하라.(순배가 끝나자 취하여 부축을 받으면서 나왔는데 밤은 이미 三鼓(자정)였다.)<sup>45)</sup>

역대 왕들도 야대에서는 독서 후 주연을 베풀기도 하였듯이 인조 역시 경연관

정하고 사악하도다. 신하도 이에 화합하여 무리를 만들고 원수가 되어 권력을 위협하고 서로 멀하니 무고한 자들이 하늘에 고하여 더러운 덕이 드러나 들리게 되었다.)

45) 『朝鮮王朝實錄』 仁祖 8年 9月 19日(乙未) 卷23. 冊34. p.400.

들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월엔 독서토론 2건과 및 왕의 학문에 대한 비판 1건이 있다. 첫 번째 토론은 6일에 『書傳』 <洪範篇>을 읽고 “象數之學”에 대해 최명길이 설명하면서 토론이 시작되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知經筵 崔鳴吉: 河圖洛書는 그 이치가 심오합니다. 伏羲와 大禹는 그림을 보고 그 이치를 알았으며, 武王이 箕子를 찾아가자 기자가 그 법을 더 깊이 추구하고 보태어 진술하였습니다. 상수에 관한 학은 필부도 오히려 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제왕이겠습니까.

인조: 종사할 필요야 없지마는 그 數는 알아두는 것도 무방하다. 지금 누가 그것을 잘 아는가?

최명길: 듣건대 문학 李尙馨이 조금 이해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눌하여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인조: 鄭經世와 이상형 중 누가 나은가?

특진관 張維: 신은 누가 나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형이 경세보다 반드시 나은 것은 아닙니다. (이어 思자의 뜻을 논하였는데)

장유: 사람의 행위가 선하나 불선하냐는 모두 사려가 밝느냐 밝지 못하느냐에서 연유됩니다.

인조: 과인에 대해 말한다면 어떤 일이 불선한가?

시독관 崔有海: 聖德은 참으로 말할 만한 흠이 없습니다. 다만 하교하실 때 실정 이외의 말씀을 신료들에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성을 참지 못하여 그런 것입니다. 신은 그 점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인조: 그렇다면 나의 병통은 말하는 데에 있는 것인가?

최명길: 본과 末로 말하자면 생각은 본이자 體이며, 말은 말이자 用입니다. 고인들은 반드시 말하는 데 대한 공부를 하였는데 어찌 思자에 대해 공력을 기울이지 않았겠습니까.

장유: 유해의 말이 과연 매우 절실합니다. 그 병통의 근본을 따져보면 생각하는 공력에 혹 미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중도에 벗어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조: 그 말이 참으로 좋다. 생각을 말의 근본으로 삼는 것이 더욱 절실하겠다. (이하 생략)<sup>46)</sup>

8년 10월 26일에는 소대에서 『서전』 <稽疑章>까지 읽고 토의하였다.

46) 『朝鮮王朝實錄』 仁祖 8年 10月 6日(辛亥) 卷23. 冊34. p.400.

인조: 이 편은 오로지 卜筮만을 언급하였는데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는 상(商)나라 풍속이 귀신을 숭상하였는데, 아마 그 유평인 듯하다. 卿士와 庶民이 찬동치 않음은 살피지 않고 거북과 시초 점(占)만을 중시하였으니 이상하지 않은가?

시독관 兪省曾: 舜임금 때에는 ‘내 마음을 먼저 정한 뒤에 거북점을 친다.’라는 말이 있으니, 이는 중시하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 덕을 닦고 卜筮에 물으니, 이른바 ‘귀신에 질정하여도 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조: 지난 昏朝 때에는 卜筮에 현혹되어 궁중의 자질구레한 일까지도 반드시 점을 쳤다. 덕을 닦지 않고 무당 귀신을 믿는 자는 오히려 해를 받는 것이다.<sup>47)</sup>

10월 30일에는 주장에서 『書傳』을 읽은 뒤에 지경연 이귀가 인조의 학문을 비판하였다.

“성상께서는 학문상의 공부가 부족하므로 좋아하고 싫어함이 분명치 않아 선악이 뒤섞이니 조정을 화합하게 하는 아름다움을 바라지만 역시 어렵지 않겠습니까. 학문이란 정치의 큰 근본입니다.”<sup>48)</sup>

이와 같이 왕의 면전에서 왕에 대한 학문의 깊이를 비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는 인조가 얼마나 독서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인가를 입증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9년에는 1월부터 3월 16일까지 경연이 없었다. 3월 17일, 19일 주장, 21일 조강, 22일, 25일 주장에서 서전을 읽었으며, 4월 1일 조강, 8일 주장, 10일 석강, 11, 16, 17, 30일 주강을 실시하였다. 5월에는 3, 20일 주장, 22, 26, 28일 소대를 실시하였고, 6월, 1일과 3일만 소대하고 경연은 없었다. 7월에는 4일 하루 소대, 8월에는 16일 소대, 18일 주강을, 9월에는 18, 20, 25, 27일 나흘간 주강을, 10월에는 2일 주장, 11일 주장, 16, 17일 소대, 17일 야대에서 대학연의, 19일 소대에서 서전, 11월 1일 조강, 3, 5, 9, 10일 소대, 윤11월 4, 6, 9, 10, 15, 16, 18, 26, 28일 총에는 모두 소대만 실시하였으며, 12월에도 3, 8, 22, 25, 27일 모두 소대를 실시

47) 『朝鮮王朝實錄』 仁祖 8年 10月 26日(辛未) 卷23. 冊34. p.403.

48) 『朝鮮王朝實錄』 仁祖 8年 10月 30日(乙亥) 卷23. 冊34. p.403.

하였다.

9년 4월 10일 석강에 『대학연의』를 읽고 23년까지 석강이 없었으며, 야대 역시 9년 10월 17일 이후에는 없었다.

10년(1632) 1월 17, 23, 29일 정식 경연은 없었고, 소대만 실시하였다. 2월 3일 소대, 20, 22일 주장, 3월 3일 조강, 6일 주장, 22일 조강, 4월 7일 주장, 11일 조강, 18일 주장, 24, 29일 소대를 하고 다음 날 4월 30일에는 서전을 거의 완독했기 때문에 다음 읽어야 할 책을 선정하였다. 지경연 최명길은 시전보다 정치에 필요한 『春秋』를 먼저 읽도록 하였으며, 영의정 尹昉 등이 의논하여 “『詩經』은 바른 性情에서 나와서 감동시켜 분발하게 하고 징계하여 고치게 하니, 가장 본원적인 것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제왕의 학문은 본래 선후의 차례가 있는 것으로서 당연히 『詩經』이 먼저이고 『春秋』가 다음입니다.”<sup>49)</sup>라고 하여 『春秋』보다 『詩傳』을 먼저 읽도록 추천하였다. 인조는 추천에 따라 다음 독서자료로 『詩傳』을 선택하였다. 그 뒤 5월부터 11(1633)년, 12년 8월 29일까지 모든 경연이 중단되었다. 그 이유는 선조의 계비이자 영창대군의 어머니이면서 인조에게 왕위 교서를 내린 인목대비 김씨(김제남의 딸; 1584-1632)가 인조 10년(1632) 6월 28일 49세로 세상을 떠난 관계로 판단된다.

그 동안 읽어왔던 『書傳』은 12년(1634) 8월 30일과 윤8월 26일 주장에서 마지막으로 완독하고, 10년 4월 30일에 선정된 『詩傳』은 12년 9월 1일부터 주장에서 지경연 崔鳴吉 등과 읽기 시작하였다. 9월 1일, 5, 15, 29일 주장, 10월 10일, 16, 20일 주장을, 1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경연이 중단되었다. 13년(1635) 2월 13, 20, 22, 25일 총 4일간을 주장에서 시전을 읽었다. 3월은 경연이 없었으며, 4월에는 3, 5, 13, 17, 20일 주장, 25일 소대, 29일 주장을 하였다. 25일 소대에서 <君子偕老>와 <桑中>章을 읽은 뒤 질의 응답한 내용을 보면,

인조: 衛나라의 음란함이 어찌하여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世族 在位자들이, 처첩을 서로 흠친다는 것은 너무도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이다.  
시독관 金壽翼: 이는 宣姜이라는 首惡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49) 『朝鮮王朝實錄』 仁祖 10年 4月 30日(丁酉) 卷26. 冊34. p.482.

인조: 위에서 하는 일을 아래에서 본받는 것이 그림자보다도 더 빠르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악을 따르기는 쉽고 선을 따르기는 어렵단 말인가?  
 검토했 李時樸: 선을 따르기는 마치 쌓아 올리는 것과 같고 악을 따르기는 마치 무너뜨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인조: 그렇다. 昏朝의 일만 보더라도 중인 이하는 물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서 몇 십 년도 안 되어 온 세상이 다 휩쓸렸으니, 악을 행하기 쉬움이 곧 이와 같다.<sup>50)</sup>

인조가 13년(1635) 4월 25일 소대에서 읽었다는 <君子偕老>와 <桑中>은 『詩經』 國風 鄘風 제3편에 해당한다.

동 4월 28일에는 인조가 조강에서 독서할 계획을 세웠으나 조강에 차출된 간원 두 사람이 결석하자 독서를 중단하게 되었다. 그 책임으로 정원이 죄를 청했으나 용서하고, 다음 날 결석한 尹堦를 추고하고 金壽翼을 파직하였다.<sup>51)</sup> 5월에는 3, 8, 12, 20일 총 4일을 주강에서 독서했으며, 6월은 없었다. 7월에는 15일과 18일 이틀간 주강, 8월은 9, 11, 14일로 3일, 9월은 15, 19, 24, 27일로 4일, 10월에는 1일 조강, 5, 9, 14일 소대, 16일, 18일 주강, 22일 소대, 26일 주강을 실시하였으며, 11월 4, 6일 두 번 소대한 뒤 12월은 중단되었다. 인조 13년 10월 1일 조강에서 『詩傳』 「鄭風」의 <有女同車> · <山有扶蘇> · <稊兮> · <狡童> · <褰裳> · <丰> 등을 읽고 토론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참찬관 정은: 이 시는 민간의 남녀들이 서로 희롱하는 글로 그 文義는 進講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사람들의 시를 보는 법은, 혹 먼 곳에 나아가 가까운 것을 보기도 하고 혹 類를 비교해서 반대로 보기도 하였으며, 또 옛말에 ‘어진 이를 여색처럼 좋아한다.’ 하였습니니다. 그러니 인군이 이 시의 여색을 좋아하는 뜻을 어진 이를 여색처럼 좋아하는 것으로 본다면 좋을 것이고, 산유부소의 ‘美男子는 보지 못하고 이 미친 녀석을 만났네.’라는 말을 현인은 만나지 못하고 미친 사람을 만났다는 것으로 돌려서 보면, 역시 좋을 것입니다.

인조: 문의 이외에 절실한 말로 경계하니, 모두가 좋은 말이다. 요 · 순 시대에도 역시 음탕한 여인이 있었는가?

50) 『朝鮮王朝實錄』 仁祖 13年 4月 25日(甲辰) 卷31. 冊34. p.592.

51) 『朝鮮王朝實錄』 仁祖 13年 4月 28日(丁未) 卷31. 冊34. p.593.

『朝鮮王朝實錄』 仁祖 13年 5月 29日(戊寅) 卷31. 冊34. p.599.

정온: 요·순 시절에는 ‘집집마다 모두 封侯를 할 만하다.’ 하였으니, 반드시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풀에 바람이 불면 반드시 높는다.’ 했으니, 이 모두가 인군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sup>52)</sup>

동 10월 9일 소대에서 『시경』 <東門>·<野有蔓草>·<溱洧>章을 읽은 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정온과 최연 등이 토론하였으며,<sup>53)</sup> 동 11월 4일 소대에서 『詩經』의 <園有桃章>을 읽고 정뇌경, 김익희 등과 토론하였다. 그 과정을 보면,

“侍讀官 鄭雷卿: 원유도장은 나라가 작는데 바른 정치가 없는 것을 근심하는 것입니다. 무릇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니, 사람의 바르지 못함을 바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정치가 있더라도 정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시를 지은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근심한 것입니다.

인조: 어찌 온 나라 사람이 그 그릇됨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정뇌경: 한 사람도 깨닫는 사람이 없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자씨가 말한 ‘입금이 말을 하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 卿大夫가 그 잘못을 감히 바로잡지 못하고, 경대부가 말을 하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 士庶人が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金益熙: 그 잘못을 깨닫는다면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나라의 일은 날로 잘못되어 가는데도 오늘날처럼 나라를 걱정하는 신하가 없었던 것입니다.”<sup>54)</sup>

이 후 인조 14년(병자년, 1636) 1월부터 4월 23일까지 경연에서 독서는 없었다. 오래도록 경연이 없자 1월 10일 승정원에서 추위와 국상관계로 경연을 열지 못했으니 이제는 봄날이 따뜻해지고 있으므로 경연을 내일부터 시작하자는 건의로 인조의 승낙은 받았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1월 28일에 사헌부에서 다시 건의를 하였다. 마지못해 그 해 4월 25일 참찬관 兪伯曾 등과 주장을 단 하루 실시하였다.

5월 1일, 21일 조강, 29일 주장, 6월 5, 9일 주장, 11일 조강, 7월 19, 22, 23,

52) 『朝鮮王朝實錄』 仁祖 13年 10月 1日(戊寅) 卷31. 冊34. p.611.

53) 『朝鮮王朝實錄』 仁祖 13年 10月 9日(丙戌) 卷31. 冊34. p.612.

54) 『朝鮮王朝實錄』 仁祖 13年 11月 4日(庚戌) 卷31. 冊34. p.614.

25일 주장, 8월 27일 주장, 9월 19일 주장, 10월 10, 13, 15, 18일 주장, 그리고 11월 12일은 하루만 주장을 실시하였다. 12월엔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침입하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해 있다가 15년(1537) 1월에 한강의 삼전도 나루터로 가서 항복한 뒤 청나라 태종에게 세 번 절하고 머리를 땅에 아홉 번이나 조아리는 등 굴욕적인 일을 당한 바 있다(병정호란). 그러한 상황에서 독서에 마음이 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후유증으로 윤4월까지 독서를 하지 못했다. 5월이 되어 마음이 조금 안정되어 8일, 11일, 14일, 16일, 18일 등 며칠씩 건너뛰면서 주장을 실시하고, 21일엔 조강, 28일엔 주장을 실시하였으며, 6월은 무더위 관계로 중단되었다. 7월은 15일 주장, 21일 조강, 27일 주장, 8월은 경연이 없었고, 9월에는 6일 주장, 11일 조강, 14, 24일 주장, 27일 조강, 29일 주장, 10월은 5, 9, 16, 23일 주장, 11월, 12월은 경연이 없었다.

인조 16년(1638) 1월 10일 주장에서는 『시경』 <小弁篇>을 읽었으며, 계속해서 17, 21, 25, 29일 주장에서는 <小雅>, <谷風>을 읽었으며, 2월에는 8일, 11일 이틀 주장을 실시하고, 3월은 7, 14, 21일 주장, 4월은 몸이 편치 못하여 경연이 중단되어 겨우 27일에 文政殿 廡下에서 소대를 실시하여 『시경』을 읽었다.<sup>55)</sup> 그리고 5월 들어 8일 하루 소대, 16일 주장, 21일 조강 각각 1회씩 독서를 하였다. 5월 8일 소대에서 책을 읽은 뒤 검토관 崔有海와 영의정 李弘胄, 좌의정 최명길이다음 읽어야 할 책을 논의하였다. 최유해는 『宋鑑』과 『綱目』을 선정하고, 이홍주는 『宋鑑』을, 최명길은 『綱目』을 추천하였으나, 인조는 영상이 추천한 『宋鑑』을 선정하였다.<sup>56)</sup> 16일 주장에서는 참찬관 李敬輿가 인조를 비판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李敬輿: 전하께서 경연을 열고 講學하신 지 오래되었는데, 格物致知와 誠意 正心의 근본을 실지로 깨닫지 못하신 듯합니다. 삼가 성상의 말씀과 하는 일을 보면 치우친 마음이 없지 않아 군신 사이에 성의가 서로 미덥지 못하니 모든 일이 번다해져 날로 망해가는 것은 괴이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55) 『朝鮮王朝實錄』 仁祖 16年 4月 27日(庚申) 卷36. 冊35. p.18.

56) 『朝鮮王朝實錄』 仁祖 16年 5月 8日(庚午) 卷36. 冊35. p.20.

인조: 식견이 밝지 못해 그러한 것을 면치 못하니, 경의 말이 옳다. 마땅히 유념 하겠다.”<sup>57)</sup>

이경여(1585-1657)는 인조반정 때 복직된 인물로 이괄의 난 때 호종하고, 또한 병자호란 때 역시 인조를 모시고 남한산성으로 피란한 인물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신임을 두텁게 받은 이경여는 위의 내용과 같이 허물없이 소통하는 관계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6월엔 2일 주장, 7월은 11일 소대, 19일 조강, 22일 주장, 8월은 19, 23, 26, 29일 주장, 9월은 26일 주장 한 번, 10월은 13, 16, 19, 22일 주장, 11월은 1일 주장, 6일 조강, 8, 11일 주장을 하고, 12월엔 중단되었다.

10월 21일에는 우의정 심열이 추위관계로 조강시간을 辰時와 巳時 사이로 조정하고, 주장에는 대신과 兩司(사헌부, 사간원)를 간혹 참여시키도록 하자는 건의를 한 바 있다.<sup>58)</sup>

17년(1639) 1월에는 7, 9, 12, 15일 주장, 25일 소대, 27, 29일 주장, 2월에는 2일 주장, 4일 조강, 8일 소대, 11, 13, 18일 주장, 21일 조강, 23, 25, 27, 29일 주장, 3월은 3, 13, 주장, 19일 소대, 25일 조강, 4월은 5, 19일 주장, 21일 조강, 25, 28일 주장, 5월은 4, 14일, 16일 주장, 21일 조강, 25일 주장, 6월은 5일 주장, 7월에는 25일 단 하루만 주장을 실시하였다. 이 후 거의 경연이 없었다.

이상으로 인조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혼란을 거듭하면서 경연에서 독서를 실시해왔다. 그가 읽었던 책은 조강과 주장에서 재위 1년 3월부터 윤10월 14일까지 『論語』, 윤10월 15일부터 2년 1월 15일까지 『大學』, 2년 1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論語』, 2년 8월 26일부터 5년 9월 16일까지 『孟子』, 5년 11월 1일부터 6년 8월 6일까지 『中庸』, 6년 9월 27일부터 12년 윤8월 26일까지 『書傳』, 12년 9월 1일부터 17년 7월 25일까지 『詩傳』을 읽었다. 그리고 석강은 『大學衍義』 한 과목뿐이었다. 즉, 인조가 재위 27년간 읽었던 책은 조강과 주장과목으로 『論語』, 『大學』, 『孟子』, 『中庸』, 『書傳』, 『詩傳』 등 6종이며, 석강과목으로 『大學衍

57) 『朝鮮王朝實錄』 仁祖 16年 5月 16日(戊寅) 卷36. 冊35. p.21.

58) 『朝鮮王朝實錄』 仁祖 16年 10月 21日(庚戌) 卷36. 冊35. p.38.

義』 1종뿐이다. 독서장소는 인조 2년 1월까지의 ‘문정전’을, 그 이후부터는 ‘자정전’을 주로 이용하였다. 경연에 참여한 경연관 및 특진관은 [부록]과 같다.

### 3. 讀書回數

#### 3.1 朝講

조강은 경연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경연관뿐만 아니라 각 관의 문신들을 참여케 한 뒤 책을 읽고 토론하며, 또한 국정을 논하여 국사를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한 회의의 시간이나 다름없다.

조강에 경연에 참석자가 결석하거나 지각한 경우에는 파직 당한 경우도 있다. 일례로 17년 2월 4일 장령(정4품) 趙重呂가 지각했다는 이유로 파직하였다.<sup>59)</sup> 이는 인조가 조강을 거의 실시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모든 문신들이 그 중요성을 모르고 나태해 있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表 1> 朝講日程別回數

月 年度	1	2	3	4 (윤)	5	6	7	8	9	10 (윤)	11	12	計	累計
1	-	-	3	3	5	-	4	1	1	3(3)	-	-	23	23
2	-	-	-	1	2	-	2	4	-	2	1	-	12	35
3	-	-	4	-	4	2	5	3	2	1	-	-	21	56
4	-	-	-	-	-	-	-	-	-	-	-	-	0	56
5	-	-	-	-	-	-	-	-	-	-	1	-	1	57
6	-	-	-	-	-	-	1	-	-	1	-	-	2	59
7	-	-	4	1(4)	2	-	3	-	-	1	-	-	15	74
8	1	-	-	2	1	-	-	-	2	-	-	-	6	80
9	-	-	1	1	-	-	-	-	-	1	1	-	4	84
10	-	-	2	1	-	-	-	-	-	-	-	-	3	87

59) 『朝鮮王朝實錄』 仁祖 17年 2月 4日(壬辰) 卷38. 冊35. p.48.

年度 \ 月	1	2	3	4 (윤)	5	6	7	8	9	10 (윤)	11	12	計	累計
11	-	-	-	-	-	-	-	-	-	-	-	-	0	87
12	-	-	-	-	-	-	-	-	-	-	-	-	0	87
13	-	-	-	1	-	-	-	-	-	1	-	-	2	89
14	-	-	-	-	2	1	-	-	-	-	-	-	3	92
15	-	-	-	-	1	-	-	-	1	-	-	-	2	94
16	-	-	-	-	1	-	1	-	-	-	1	-	3	97
17	-	2	-	1	1	-	-	-	-	-	-	-	4	101
18	-	-	-	-	-	-	-	-	-	-	-	-	0	
19	-	-	-	-	-	-	-	-	-	-	-	-	0	
20	-	-	-	-	-	-	-	-	-	-	-	-	0	
21	-	-	-	-	-	-	-	-	-	-	-	-	0	
22	-	-	-	-	-	-	-	-	-	-	-	-	0	
23	-	-	-	-	-	-	-	-	-	-	-	-	0	
24	-	-	-	-	-	-	-	-	-	-	-	-	0	
25	-	-	-	-	-	-	-	-	-	-	-	-	0	
26	-	-	-	-	-	-	-	-	-	-	-	-	0	
27	-	-	-	-	-	-	-	-	-	-	-	-	0	
총회수	1	2	14	15	19	3	16	8	6	13	4	0	101	101

인조가 실시한 조강을 보면 재위 27년간 총 101회로 조사되었다. <表 1>에 나타나듯이 재위 1년 23회, 2년 12회, 3년 21회와 7년 15회로 이들이 가장 많이 실시한 해이기도 하다. 한 번도 실시하지 못한 해가 4년, 11년, 12년, 그리고 18년 이후부터는 전혀 실시하지 못했다. 월별로 보면 1월 1회, 2월 2회, 3월 14회, 4월 15회, 5월 19회, 6월 3회, 7월 16회, 8월 8회, 9월 6회, 10월 13회(윤달 포함), 11월 4회, 12월 0회로 1월, 2월, 6월과 12월은 거의 독서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3.2 晝講

주강은 선왕의 규정에 의하면 조강에 읽은 책을 주강에 복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인조때는 조강을 거의 실시하지 못해 주강에 본 독서를 진행하거나, 주로 국정토론을 많이 하였다.

<表 2> 書講日程別回數

年度 \ 月	1	2	3	4 (윤)	5	6	7	8	9	10 (윤)	11	12	計	累計
1	-	-	1	3	5	3	13	8	10	8(18)	3	1	73	73
2	9	-	4	12	11	1	8	4	13	8	6	-	76	149
3	7	5	12	13	7	-	3	7	11	7	1	-	73	222
4	-	-	-	-	-	-	-	3	6	4	1	-	14	236
5	-	-	-	-	-	-	-	1	4	-	2	1	8	244
6	-	-	-	-	-	-	3	1	2	5	2	1	14	258
7	-	3	5	5(7)	5	-	4	2	1	1	-	-	33	291
8	3	3	1	3	2	-	-	4	3	5	-	-	24	315
9	-	-	4	5	2	-	-	1	4	1	-	-	17	332
10	-	2	1	2	-	-	-	-	-	-	-	-	5	337
11	-	-	-	-	-	-	-	-	-	-	-	-	0	337
12	-	-	-	-	-	-	-	1(1)	4	3	-	-	9	346
13	-	4	-	5	4	-	2	3	4	3	-	-	25	371
14	-	-	-	1	1	2	4	1	1	4	1	-	15	386
15	-	-	-	-	6	-	2	-	4	5	-	-	17	403
16	5	2	3	-	1	1	1	4	1	4	3	-	25	428
17	6	8	2	4	4	1	1	-	-	-	-	-	26	454
18	-	-	-	-	-	-	-	-	-	-	-	-	0	
19	-	-	-	-	-	-	-	-	-	-	-	-	0	
20	-	-	-	-	-	-	-	-	-	-	-	-	0	
21	-	-	-	-	-	-	-	-	-	-	-	-	0	
22	-	-	-	-	-	-	-	-	-	-	-	-	0	
23	-	-	-	-	-	-	-	-	-	-	-	-	0	
24	-	-	-	-	-	-	-	-	-	-	-	-	0	
25	-	-	-	-	-	-	-	-	-	-	-	-	0	
26	-	-	-	-	-	-	-	-	-	-	-	-	0	
27	-	-	-	-	-	-	-	-	-	-	-	-	0	
총회수	30	27	33	60	48	8	41	41	68	76	19	3		454

<表 2>와 같이 재위연도 별로 주장실시 회수를 보면 1년 73회, 2년 76회, 3년 73회, 4년 14회, 5년 8회, 6년 14회, 7년 33회, 8년 24회, 9년 17회, 10년 5회, 11년 0회, 12년 9회, 13년 25회, 14년 15회, 15년 17회, 16년 25회, 17년 26회 등 총 453회로 나타났다. 18년 이후 부터는 주장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월별로 보면, 4월, 9월, 10월이 가장 많았다. 이상의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인조는 재위 초기에만 3년간 충실히 독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인조의 독서력은 광해군 이후 최저이다.

### 3.3 夕講 및 夜對(\*는 夜對回數)

夕講은 저녁에 실시하는 경연제도로 조강과 주장과는 달리 별도의 책으로 독서를 진행하였다. 또한 夜對는 경연에서 읽었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인조는 충실하게 이용하지 못했다.

<表 3> 夕講, 夜臺日程別回數

年度 \ 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計	累計
1	-	-	-	6	1	1	2	2	2	1*1	2	-	18	18
2	-	-	-	-	1	-	-	*1	-	1*1	-	-	4	22
3	-	-	-	-	-	-	-	1	1*1	-	-	-	3	25
4	-	-	-	-	-	-	-	-	-	-	-	-	0	25
5	-	-	-	-	-	-	-	-	-	-	-	-	0	25
6	-	-	-	-	-	-	-	-	-	-	-	-	0	25
7	-	-	-	-	-	-	-	-	-	-	-	-	0	25
8	-	-	-	-	-	-	-	-	*1	1	-	*1	3	28
9	-	-	-	1	-	-	-	-	-	*1	-	-	2	30
10	-	-	-	-	-	-	-	-	-	-	-	-	0	
11	-	-	-	-	-	-	-	-	-	-	-	-	0	
12	-	-	-	-	-	-	-	-	-	-	-	-	0	
13	-	-	-	-	-	-	-	-	-	-	-	-	0	
14	-	-	-	-	-	-	-	-	-	-	-	-	0	

月 年度	1	2	3	4	5	6	7	8	9	10	11	12	計	累計
15	-	-	-	-	-	-	-	-	-	-	-	-	0	
16	-	-	-	-	-	-	-	-	-	-	-	-	0	
17	-	-	-	-	-	-	-	-	-	-	-	-	0	
18	-	-	-	-	-	-	-	-	-	-	-	-	0	
19	-	-	-	-	-	-	-	-	-	-	-	-	0	
20	-	-	-	-	-	-	-	-	-	-	-	-	0	
21	-	-	-	-	-	-	-	-	-	-	-	-	0	
22	-	-	-	-	-	-	-	-	-	-	-	-	0	
23	-	-	-	-	-	-	-	-	-	-	-	-	0	
24	-	-	-	-	-	-	-	-	-	-	-	-	0	
25	-	-	-	-	-	-	-	-	-	-	-	-	0	
26	-	-	-	-	-	-	-	-	-	-	-	-	0	
27	-	-	-	-	-								0	
총회수	0	0	0	7	2	1	2	4	5	6	2	1	30	30

재위 1년에 석강 17회, 야대 1회, 2년에는 석강 2회, 야대 2회, 4년부터 7년까지는 한 번도 실시하지 못했으며, 8년에 석강 1회, 야대 2회, 9년에는 석강, 야대 1회씩 재위 27년간 총 30회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수치를 볼 때 밤에는 거의 독서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이다. 재위 27년간 석강에서 읽은 책은 『大學衍義』 한 종뿐이다.

### 3.4 召對

召對는 경연에서 부족한 내용이 있을 경우 수시로 문신을 불러 보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인조는 조강, 주강을 부실하게 하여 보충한다는 개념이 없다. 무조건 왕명으로 참관관 이하 젊은 문신들을 불러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조의 소대는 5년 11월부터 시작되어 17년까지 실시되었다. 한 때는 경연은 거의 하지 않고 소대를 며칠 실시하자 崔惠吉(1591-1662)이 소대는 젊은 강관뿐이니 노성한 신하들이 모이는 경연을 열도록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인조는 경연을 열면 노병한

신하들이 병을 얻을까 염려되어 소대만 한다는 동정심을 발휘한 경우도 있다.<sup>60)</sup>

<表 4> 召對日程別回數

月 年度	1	2	3	4	5	6	7	8	9	10	11 (윤)	12	計	累計
1			-	-	-	-	-	-	-	-	-	-	0	0
2			-	-	-	-	-	-	-	-	-	-	0	0
3			-	-	-	-	-	-	-	-	-	-	0	0
4	-	-	-	-	-	-	-	-	-	-	-	-	0	0
5	-	-	-	-	-	-	-	-	-	-	4	8	12	12
6	-	-	-	-	-	-	-	-	-	2	4	1	7	19
7	3	-	-	-	-	-	-	-	5	2	-	-	10	29
8	3	3	-	1	5	-	2	2	1	2	1	-	20	49
9	-	-	-	-	3	2	1	1	-	3	4(11)	5	30	79
10	3	1	-	2	-	-	-	-	-	-	-	-	6	85
11	-	-	-	-	-	-	-	-	-	-	-	-	0	85
12	-	-	-	-	-	-	-	-	-	-	-	-	0	85
13	-	-	-	1	-	-	-	-	-	4	2	-	7	92
14	-	-	-	-	-	-	-	-	-	-	-	-	0	92
15	-	-	-	-	-	-	-	-	-	-	-	-	0	92
16	-	-	-	1	1	-	1	-	-	-	-	-	3	95
17	1	1	1	-	-	-	-	-	-	-	-	-	3	98
18	-	-	-	-	-	-	-	-	-	-	-	-	0	
19	-	-	-	-	-	-	-	-	-	-	-	-	0	
20	-	-	-	-	-	-	-	-	-	-	-	-	0	
21	-	-	-	-	-	-	-	-	-	-	-	-	0	
22	-	-	-	-	-	-	-	-	-	-	-	-	0	
23	-	-	-	-	-	-	-	-	-	-	-	-	0	
24	-	-	-	-	-	-	-	-	-	-	-	-	0	
25	-	-	-	-	-	-	-	-	-	-	-	-	0	
26	-	-	-	-	-	-	-	-	-	-	-	-	0	
27	-	-	-	-	-	-	-	-	-	-	-	-	0	
총회수	10	5	1	5	9	2	4	3	6	13	26	14	98	98

60) 『朝鮮王朝實錄』 仁祖 6年 11月 20日(丁丑) 卷19. 冊34. p.306.

인조의 召對 회수는 총 98회로 이를 재위 년도 별로 보면, 5년 12회, 6년 7회, 7년 10회, 8년, 20회, 9년 30회(윤달 포함), 10년 6회, 13년 7회, 16, 17년 각 3회로 8년과 9년에 가장 많이 召對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에는 『中庸』, 6년부터는 『書傳』으로 소대하였다. 17년 4월 이후부터는 단 1회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상은 강별로 인조의 독서력을 파악하였다. 조강 10회, 주장 453회, 석강 및 야대 30회, 소대 98회로 역대 왕들 중 가장 저조한 독서력이다. 왜 이와 같은 저조한 독서력이 나타났는지 그 요인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 4. 讀書沮害要因

인조는 1623년 3월 12일밤 반정으로 29세에 왕위에 오른 후 대북파를 숙청하고 친명사대주의 정책을 썼으나 국정은 안정되지 못하였다. 다음 해인 인조 2년 1월에 이괄이 난을 일으켜 수원으로 피신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 후유증으로 2년 2월은 경연이 모두 중단되었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후 안정된 독서를 시도했으나 인조 3년 12월에 인조의 모친 계운궁이 병이 들어 병수발 드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으며, 마침내 이듬해에 계운궁이 갑자기 죽게 되자 장례관계로 8월 9일까지 경연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다시 11월부터 5년(1627) 8월 6일까지 仁獻王后 제사 및 여진족의 침략(정묘호란)으로 책을 읽지 못했다. 그 후 안정을 되찾고 경연관들과 독서 후 책의 내용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였으나, 인조 14년(1636) 12월에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다시 공격하여 왔다. 45일 만에 패전한 인조는 삼전도의 굴욕과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을 청에 인질로 보내게 되었다. 그 후부터 인조는 건강이 좋지 못해 경연에서의 독서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 생각날 때면 경연을 열어 문신들과 독서한 뒤 시국에 관련된 토론을 하였으나 18년(1640) 이후부터는 모든 경연을 중단하였다. 계속해서 경연을 멈추자 정언 河潛이 국가기강문제와 더불어 상소를 올렸다. 상소의 내용은

“아, 경연을 설치한 것은 어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조강을 하고 주강을 하고 석강을 하고 夜對를 하는 것은 대체로 임금의 덕을 보도하고 조정의 정사를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延訪할 때에는 잘잘못을 상고해 볼 수 있고, 임금의 물음에 따라 대답하는 사이에 충성과 간사함을 가려낼 수 있고, 토론하고 담화하는 것으로 지혜를 넓힐 수 있고, 드나들며 움직이는 것으로 志氣를 통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려가 이미 안정되고 德業이 차츰 진보하면 태만한 마음이 끼어들 틈이 없고 경외하고 삼가는 뜻이 사라지는 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옥당의 여러 관원들이 정원수만 채우고 대낮의 맑은 창가에 마주 앉아 한가로이 즐면서 모두 오랫동안 천안을 뵈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전하께서 항상 가까이하는 자는 환관과 궁첩이며, 항상 귀에 들으시는 것은 잡스럽고 비루한 말들이니, 조정 정사의 잘잘못을 무엇을 통해 알고 민생의 고통을 무엇을 통해 아시겠습니까.(中略)

삼가 원컨대 전하께서는 깊은 궁궐을 편안하게 여기시거나 옥후가 미령한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유신들을 맞아 접견하기를 한결같이 고사대로 하시어, 便殿이나 혹은 寢閣에서 옛날의 역사를 강론하고 사무를 널리 묻고 심지를 가다듬고 다스리는 도를 힘써 강구하소서. 이와 같이 하시면 크게는 이완된 조정 정사와 작게는 민간의 고통이 모두 임금 앞에 개진되어, 기강을 정돈할 수 있고 수비를 공고히 할 수 있으며, 인심은 저절로 단결되고 상벌은 저절로 밝아질 것이니, 위태로움을 돌려 편안하게 하는 전기가 오로지 여기에 달려 있다 하겠습니까.” 하였는데, 답을 내리지 않았다.<sup>61)</sup>

위의 내용을 보면 경연의 목적과 경연관들의 태도를 보고하면서 경연을 개시하라는 의미가 모두 나타나 있다. 동 2월 25일에도 李有滄과 3월 3일 홍문관 부제학 金埴 등이 경연을 재개할 것 등에 대한 내용으로 상소를 올렸으나 실효가 없었다. 다음 해 인조 21년(1643) 5월 14일 李植 등이 올린 상소의 내용 중

“전하께서는 오랫동안 경연을 정지하여 啓沃(임금을 깨우쳐 인도하는 일, 보

61) 『朝鮮王朝實錄』仁祖 20年 2月 2日(壬寅) 卷43. 册35. p.128. “噫! 經筵之設, 豈偶然哉? 其以朝講焉, 晝講焉, 夕講焉, 夜對焉, 蓋爲輔導君德也, 講究朝政也. 延訪之際, 可以考見得失; 承對之間, 可以辨別忠佞; 討論談話, 可以開廣聰明; 出入起居, 可以宣暢志氣. 思慮既定, 德業漸進, 怠慢之心, 無自以或入; 敬謹之志, 無時而或息矣. 今也玉堂群僚, 徒備員數, 白日晴窓, 相對困睡, 皆以久隔天顏爲恨, 而殿下之所常親者, 宦官、宮妾; 所常聞者, 冗雜鄙瑣, 朝政之得失, 何自以知; 生民之疾苦, 何自以知?(中略) 伏願殿下, 毋以深宮爲安, 毋以愆候爲念, 晉接儒臣, 一遵故事, 或於便殿, 或於寢閣, 講討古昔, 博問事務, 策勵心志, 勉強治道. 如此則大而朝政之廢弛, 小而民間之疾苦, 靡不畢陳於前, 而紀綱可以整頓, 守備可以鞏固, 人心自結, 賞罰自明, 轉危爲安之機, 實在於是矣. 不報”

좌) 의 도움이 또한 뜰해졌을 것입니다. 옛사람의 말에 ‘병중에 글을 보는 것도 맛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테면 『綱目』 한 책은 史로 經文을 삼은 것이니, 혹시 병을 조섭하시는 여가에 유념하여 박람하시고 수시로 儒臣과 토론하고 궁리하여 사무를 헤아리고 대응하는 근본으로 삼으신다면 어찌 外物로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sup>62)</sup>

같은 해 7월 20일 좌부승지 洪鎬는

“정축년(인조 15; 1637) 이후로 옥체가 미령하여 筵席을 비운 지가 7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더위가 물러가려 하고 선선한 기운이 이미 감도니 만약 이때에 아침나절이나 늦은 밤에 수시로 儒臣을 불러 그에게 聖經의 훈계하는 말과 역사상 치란의 자취를 두루 진술하게 하고 전하께서는 자리를 기대시고 들어 그 大旨를 파악하신다면 총명이 날로 더해지고 슬기가 날로 진취하여 곧 해묵은 병이 사라짐을 깨달으실 것이니, 병을 요양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도에 도움이 됨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하니, 답하기를, “네 말이 옳다. 내 마땅히 유념하겠다.”하였다.<sup>63)</sup>

정축년이라면 인조 15년(1637) 청에게 항복하고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던 시기였다. 그 이후부터 인조는 심신이 허약하여 봄, 가을만 되면 감기증세로 고생을 하였으며, 감기가 완치되어도 대군 및 환관들과 더불어 놀기나 좋아하고 책과 비국당상들은 회피하였다.

2년 후 소현세자 사건으로 독서는 더욱 어려운 환경이었다. 1637년 병자호란 당시 볼모로 잡혀간 소현세자(1612-1645)가 1645년 돌아와서 ‘親淸行爲’를 늘어 놓는다 하여 인조는 세자를 몹시 증오하였다. 입국한 지 2달 뒤인 4월 23일 병을 얻자 독침으로 시술받아 3일 만에 죽었으며, 그 뒤 며느리인 강씨도 사약을 내려 죽게 하고, 세 명의 손자들도 제주도로 귀양 보내 2명을 병으로 죽게 하였다. 5월에 봉림대군이 귀국하자 9월에 세자로 책봉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큰 사건 속에서 평상시 마음으로 독서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인조는 세자인 장자를 죽이고, 며느리, 손자까지 죽게 한 비정한 아버지이고 할아버지

62) 『朝鮮王朝實錄』 仁祖 21年 5月 14日(丙午) 卷44. 冊35. p.156.

63) 『朝鮮王朝實錄』 仁祖 21年 7月 20日(辛亥) 卷44. 冊35. p.159.

낙인찍힐까봐 태연한 척하거나 병을 빙자하여 신하들 만나기를 꺼려했던 것이다. 더구나 경연은 독서가 목적이지만 경연 후엔 정치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좌석이다. 자신이 저지른 이러한 일들이 두려워 소통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사를 걱정한 우의정 이경석은 23년(1645) 10월 9일 시국을 걱정하면서 경연의 재개를 간청하기도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천하의 모든 일에는 근본이 있으니, 治道는 당연히 학문으로 근본을 삼아야 하고, 학문은 이치를 밝히는 것으로 근본을 삼아야 합니다. 삼가 보건대, 성상께서는 학문이 고명하시어 이치를 환히 알고 있으나 治道로 볼 때는 아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망의 소리가 날로 더해 가고 풍습이 날로 타락해 가며, 군병을 독려하려 하면 군병이 한층 더 약화되고 재산을 늘리려 하여도 재산이 불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하께서 오랫동안 조섭 중에 계시므로 경연의 강학은 평소와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책을 뒤적이며 늘 옛사람의 교훈을 생각한다면 『大學』 한 책만으로도 한 나라의 태평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이하생략)<sup>64)</sup>

그 후 3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경연을 열지 않고 책과 거리가 멀어지자 인조 26년(1648) 1월 28일 간원에서 직접적으로 인조의 부덕함을 알렸다. 실록의 내용을 보면

“전하께서 반정하신 처음에는 잘 다스리기를 도모하는 데에 마음을 두고 계셨었는데, 근년 이래에는 점차 처음만 못하십니다. 이에 오랫동안 경연을 폐하고 항상 궁첩들을 가까이하고 회로를 私心에 의거해서 하고 상벌이 정당한 데에 어긋나고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자신의 뜻에 따르는 것만을 즐겨워 하십니다.(중략) 전하의 정치가 점차 처음보다 못해지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格言을 듣지 않고 心學에 밝지 못한 탓입니다. 이제부터 계속 경연을 열어서 마음을 다스리는 책과 도에 대해 말한 글을 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내가 병이 있어 오래도록 경연을 열지 못하여 나 또한 탄식하고 있다.”<sup>65)</sup>

인조는 여전히 병을 구실로 삼아 책을 읽지 못한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64) 『朝鮮王朝實錄』 仁祖 23年 10月 9日(丁亥) 卷46. 冊35. p.243.

65) 『朝鮮王朝實錄』 仁祖 26年 1月 28日(甲子) 卷49. 冊35. p.316.

인조는 간원에서 말한 것처럼 병이 없을 때는 궁첩들과 회로애락을 즐기면서 독서는 물론 문신들의 대면을 꺼려했던 것이다. 26년(1648) 2월 4일에 사간 朴吉應은 과직을 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아뢰는 말이 앞의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오랫동안 경연을 폐한 것은 옥후가 미령하신 때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조금 편안해지는 때에 매양 유신들을 인견하여 일반 가정의 부자 사이처럼 서로 친근하게 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기 소회를 진달케 함으로써 의심을 풀고, 경서를 강론케 함으로써 의리를 밝히고, 史記를 강론하여 국가의 흥망에 대한 귀감으로 삼는다면, 修省에도 크게 유익하고 조섭에도 해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십니다.”<sup>66)</sup>

사실 인조는 말년에 들어서 신병으로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문신들의 독촉에 못 이겨 인조는 몸이 아픈데도 경연을 열어 독서하라고 간청하는 옛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라고까지 하였다.<sup>67)</sup>

이 후에도 도승지 南銑, 좌승지 金霽, 우부승지 兪槐, 동부승지 沈之源 등이 재위 26년 윤3월 20일에 날마다 경연을 열지 못해도 간간히 열어 독서하고 신하들과 접견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했으면 하는 건의를 했으니<sup>68)</sup> 끝내 인조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독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다음해인 재위 27년(1649) 5월에 55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 5. 結 言

조선조 16대왕 인조가 재위 26년 2개월간 경연에서 독서한 행태를 일정별로 조사하여 그의 독서력을 밝혔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조의 경연제도는 성종 때의 경연제도를 답습하여 조강, 주강, 석강, 3강을 위주로 하고, 그 밖에 소대와 야대를 실시하였다. 독서 장소는 인조 2년 1월까지

66) 『朝鮮王朝實錄』 仁祖 26年 2月 4日(己巳) 卷49. 冊35. p.317.

67) 『朝鮮王朝實錄』 仁祖 26年 2月 5日(庚午) 卷49. 冊35. p.317.

68) 『朝鮮王朝實錄』 仁祖 26年 윤3月 20日(乙酉) 卷49. 冊35. p.322.

‘문정전’을, 그 이후부터는 ‘자정전’을 주로 이용하였다.

2) 경연에서 읽었던 책은 조강과 주장에서 1년 윤10월 14일까지 『論語』, 윤10월 15일부터 2년 1월 15일까지 『大學』, 2년 1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論語』, 2년 8월 26일부터 5년 9월 16일까지 『孟子』, 5년 11월 1일부터 6년 8월 6일까지 『中庸』, 6년 9월 27일부터 12년 윤8월 26일까지 『書傳』, 12년 9월 1일부터 17년 7월 25일까지 5년동안 『詩傳』을 읽었다. 그리고 석강은 『大學衍義』 한 과목뿐이었다. 즉, 인조가 재위 27년간 읽었던 책은 조강과 주장과목으로 『論語』, 『大學』, 『孟子』, 『中庸』, 『書傳』, 『詩傳』 등 6종이며, 석강과목으로 『大學衍義』 1종뿐이다.

3) 인조가 실시한 조강에서의 독서회수를 보면 재위기간에 총 101회로 조사되었다. 재위 1년 23회, 2년 12회, 3년 21회와 7년 15회로 이 기간이 가장 많이 실시한 해이기도 하다. 한 번도 실시하지 못한 해가 4년, 11년, 12년, 그리고 18년 이후 부터는 전혀 실시하지 못했다.

4) 주장실시 회수를 보면 1년 73회, 2년 76회, 3년 73회, 4년 14회, 5년 8회, 6년 14회, 7년 33회, 8년 24회, 9년 17회, 10년 5회, 11년 0회, 12년 9회, 13년 25회, 14년 15회, 15년 17회, 16년 25회, 17년 26회 등 총 453회로 나타났다. 18년 이후부터는 주장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월별로 보면, 4월, 9월, 10월이 가장 많았다. 이상의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인조는 재위 초기에만 3년간 충실히 독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인조의 독서력은 광해군 이후 최저이다.

5) 夕講 및 夜對의 회수를 보면 재위 1년에 석강 17회, 야대 1회, 2년에는 석강 2회, 야대 2회, 4년부터 7년까지는 한 번도 실시하지 못했으며, 8년에 석강 1회, 야대 2회, 9년에는 석강, 야대 1회씩 재위 27년간 총 30회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수치를 볼 때 밤에는 거의 독서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이다.

6) 召對 회수는 총 98회로 이를 재위 년도 별로 보면, 5년 12회, 6년 7회, 7년 10회, 8년, 20회, 9년 30회(윤달 포함), 10년 6회, 13년 7회, 16, 17년 각 3회로 8년과 9년에 가장 많이 召對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인조의 독서력이 저조한 이유는 대북과 숙청문제, 이괄의 난, 인조의 생모인 계운궁의 사망, 정묘호란(삼전도의 굴욕), 소현세자 및 그 가족의 죽음, 본인의

질병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원인은 재위 말년으로 가면서 궁첩들과 같이 희로애락을 즐기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데 있다.

결과적으로 인조의 독서력은 선조와 광해군에 이어 역대 최하위로 나타났다. 재위 초기에는 경연을 자주 열어 독서에 전념하려는 노력은 보였으나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독서에 관심이 없었다. 재위 17년 이후부터는 전혀 경연에서의 독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물론 국내외적인 사건들로 심신의 안정이 되지 못해서 독서에 치중하지 못했다고는 하나 경연에서의 독서가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문신들과 소통하여 국가를 발전시키는 좋은 자리인 점을 감안한다면 인조는 궁첩들을 멀리하고 문신들의 경연재개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했다.

## <참고문헌>

### 1. 原典

『經國大典』.

『增補文獻備考』. 영인본. 서울: 명문당, 1985.

『朝鮮王朝實錄(宣祖實錄)』. 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6.

『朝鮮王朝實錄(宣祖修正實錄)』. 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6.

『朝鮮王朝實錄(光海君日記: 太白山史庫本)』. 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6.

『朝鮮王朝實錄(仁祖實錄)』. 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6.

### 2. 論文

姜泰訓. “朝鮮朝 經筵의 教育的 役割.”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1991.

金重權. “朝鮮朝 經筵에서 光海君의 讀書歷 考察.” 『서지학연구』 제58집(2014. 6). 179-201.

書誌學研究 第62輯(2015. 6)

南智大. “朝鮮初期의 經筵制度.” 『한국사론』 6(1986).

李相玉. “經筵에 나타난 經學과 帝王.” 『友石文理大, 法經大論文集』 第4輯  
(1970. 12).

[附錄] 經筵資料와 經筵官 및 臺諫

執權	經筵資料	經筵官 및 特進官
1년	論語 大學衍義 大學	영사: 李元翼, 尹昉(우상), 鄭昌衍(좌상) 지경연사: 金瑩, 李貴, 李廷龜, 鄭曄, 徐洙, 申欽, 특진관: 權盼, 吳百齡, 吳允謙, 柳公亮, 柳舜翼, 尹昉, 李貴, 李曙, 李晬光, 李時發, 李廷臣, 李廷禧, 朴鼎賢, 徐洙, 李必榮, 張晩 참찬관: 閔聖徵, 吳百齡, 尹安國, 李命俊, 鄭經世, 韓汝漫, 시강관: 尹知敬 시독관: 金時言, 尹知敬, 李敏求, 沈光世 검토관: 姜碩期, 兪伯曾, 李敬輿, 李植, 趙誠立, 趙希逸, 정인: 吳翻 司經: 任叔英
2년	論語 大學衍義 孟子	영사: 申欽(좌상), 尹昉(영상) 지경연사: 金瑩, 吳允謙, 徐洙, 李廷龜, 鄭光績, 鄭曄, 崔鳴吉 특진관: 金尙容, 金長生, 申景禎, 沈悅, 吳百齡, 尹昉, 李貴, 李曙, 李晬光, 李時發, 洪瑞鳳 참찬관: 金德誠, 李廷禧, 李弘胄, 鄭經世, 崔鳴吉 시강관: 兪伯曾, 李昭漢, 李植 시독관: 金時讓, 嚴愷, 李竣 검토관: 趙誠立
3년	孟子 大學衍義	영사: 尹昉, 申欽 지경연사: 金瑩, 金尙容, 徐洙, 吳允謙, 李晬光, 李廷龜, 鄭經世 특진관: 金尙容, 金盡國, 金自點, 朴東善, 徐景雨, 申景禎, 沈悅, 沈命世, 李景奭, 李貴, 李曙, 李聖求, 李顯英, 張晩, 張維, 鄭蘊, 崔來吉 참찬관: 金壽賢, 李植, 鄭廣敬, 崔鳴吉 시강관: 尹知敬 시독관: 羅萬甲, 宋象仁, 嚴愷, 尹順之 검토관: 權濤
4년	孟子	영사: 吳允謙(좌상) 지경연사: 金瑩, 金尙憲, 李弘胄, 鄭經世, 특진관: 金盡國, 徐洙, 李景稷, 李貴, 張晩 참찬관: 李植, 洪瑞鳳 시강관: 金世濂
5년	孟子 中庸	지경연사: 朴東善, 특진관: 李貴, 金光炫, 鄭弘溟 참찬관: 尹知敬, 鄭經世 검토관: 閔應亨 記事官: 鄭維城 *정경세는 3년에 지경연, 4년 동지경연으로 승급, 실록 5년 12월 20일자는 참찬관으로 기재됨.

執權	經筵資料	經筵官 및 特進官
6년	中庸 書傳	영사: 李廷龜 지경연사: 徐滄, 洪瑞鳳 특진관: 李曙, 金時讓 참찬관: 金상헌, 鄭經世(부제학)
7년	書傳	영사: 金塗(좌상), 吳允謙(영상), 李廷龜(우상) 지경연사: 金尙容, 朴東善, 李貴, 張維, 鄭經世, 洪瑞鳳 특진관: 金自點, 南以恭, 申景禎, 沈悅, 李景稷, 李弘胄, 張晩, 趙翼 참찬관: 金尙憲, 金壽賢, 尹知敬, 李植, 李顯英 시강관: 金光懋, 趙緯韓 시독관: 金南重, 權濤, 李景曾, 趙綱, 崔有海 검토관: 金光懋, 辛啓榮, 李景曾, 崔有海 *7년 11월 11일 김상헌은 동지경연에 승진되었으나 형 김상용이 지경연사에 있다는 이유로 동지경연에서 체차됨
8년	書傳	영사: 金塗, 吳允謙, 李廷龜 지경연사: 金起宗, 朴東善, 李貴, 鄭經世, 崔鳴吉(동지) 특진관: 金起宗, 金壽賢, 李曙, 張維, 鄭經世, 崔鳴吉 참찬관: 姜碩期, 金慶徵, 金蒼國, 李敬輿(부제학), 李景容, 鄭基廣 시강관: 金槩, 閔應亨 시독관: 金光懋, 閔應亨, 兪省曾, 李景曾, 李省身, 李昭漢, 趙綱, 趙緯韓, 崔有海 검토관: 金世濂, 辛啓榮, 兪省曾, 尹槩, 蔡裕後, 崔有海, 李道長 기사관: 申恂, 李海昌
9년	書傳	영사: 金塗, 尹昉 지경연사: 金時讓, 朴東善, 李貴, 張維, 특진관: 金起宗, 南以恭, 李景稷, 洪雱, 李顯英, 참찬관: 金尙憲, 尹墀, 李敬輿, 李基祚, 李榮, 李聖求, 崔鳴吉(부제학), 韓仁及 시강관: 崔惠吉(응교) 시독관: 金光懋, 尹槩, 尹坵 검토관: 具鳳瑞, 金世濂, 辛啓榮(수찬)
10년	書傳	영사: 李廷龜 지경연사: 金時讓, 李貴, 崔鳴吉 특진관: 尹墀(대사간), 金孝建(지평), 兪伯曾(대사간), 참찬관: 睦敘欽, 李敏求, 朴堧(부제학), 시독관: 羅萬甲, 趙緯韓, 검토관: 李命雄(수찬), 趙贊
11		경연정지

執權	經筵資料	經筵官 및 特進官
12	書傳 詩傳	영사: 尹昉 지경연사: 李弘胄, 趙翼(동지), 李聖求(동지), 李顯英(동지), 崔鳴吉 특진관: 金自點, 金耆國 참찬관: 金耆國, 李敬輿(부제학), 李植 시독관: 姜大遂, 兪省曾(교리) 검토관: 李時楷, 金壽翼(수찬)
13	詩傳	영사: 吳允謙, 尹昉 지경연사: 崔鳴吉, 洪瑞鳳, 金壽賢(동지), 李聖求(동지), 李弘胄 특진관: 金耆國(예조판서), 金尙憲(대사헌), 鄭太和(집의 종3), 成汝寬(헌납 정5품), 金自點 참찬관: 李植(부제학), 趙緯韓(승지), 陸敘欽(승지), 沈詒, 鄭蘊, 崔蓀, 閔應亨(사간) 시강관: 沈之源 시독관: 鄭雷卿, 金壽翼 검토관: 趙錫胤(수찬), 李時樸, 尹坵, 金益熙(수찬)
14	詩傳	영사: 洪瑞鳳(우상) 지경연사: 金尙憲(대사헌), 鄭蘊(동지), 李弘胄, 李敏求(동지), 崔鳴吉, 趙翼(예조판서), 李聖求(동지) 특진관: 崔來吉 참찬관: 兪伯曾, 閔應亨, 鄭蘊(부제학) 시독관: 金益熙(교리), 趙贊, 金壽翼(교리) 검토관: 洪命一(수찬), 李一相, 李曼(부수찬), 金益熙(수찬)
15	詩傳	영사: 金瑬, 崔鳴吉(좌상), 李弘胄(영상) 지경연사: 韓汝潁, 徐景雨(동지), 金壽賢(동지), 李顯英 특진관: 李時白, 李景曾, 任統, 具宏 참찬관: 洪憲(승지), 李景奭(부제학), 金尙 시독관: 洪命一(교리), 權滄 검토관: 尹絳, 權堦(수찬), 沈東龜(부교리), 權堦(부교리) 사경: 李禔(부수찬)
16년	詩傳	영사: 李弘胄(영상), 沈悅(우상) 지경연사: 韓汝潁, 李榮(동지), 金壽賢(동지), 徐景雨(동지), 全滉(동지), 李景奭, 南以恭(동지), 姜碩期, 朴東善, 李顯英 특진관: 任統, 曹文秀, 成以性(헌납), 李時白, 崔蓀, 朴守文(지평) 참찬관: 李景奭(부제학), 金光煜(승지), 李敬輿, 金霽(승지), 洪得一, 尹履之, 吳端 시강관: 洪命一, 柳穎 시독관: 柳滄(교리), 金振 검토관: 李尙馨(부교리, 수찬), 南老星, 沈東龜(부교리), 兪徹, 朴宗阜, 崔有海, 李桂(수찬), 申翊全(수찬), 趙壽益 사경: 朴宗阜(부수찬), 李道長(부수찬)

執權	經筵資料	經筵官 및 特進官
17년	詩傳	영사: 沈悅(우상), 申景禎(좌상), 崔鳴吉 지경연사: 南以雄, 李景奭(동지), 金槃(동지), 金榮祖(동지), 李顯英, 金壽賢, 鄭廣敬(동지), 沈詒(동지) 특진관: 李溟, 李時白, 참찬관: 李敬輿(승지), 崔衍(승지), 趙緯韓, 金集, 李景曾 시독관: 南老星 검토관: 林진(수찬)
18-27.5		이하 경연은 없었으나 임명된 경연관을 밝혀보면, 19년에 임명된 지경연사: 李景曾, 李明漢(동지), 검토관: 朴宗阜(부교리), 사경: 金弘郁(부수찬)이며, 21년 참찬관: 金埴(부제학), 25년에 임명된 지경연사: 李基祚, 부제학: 蔡裕後, 교리: 李天基, 洪處亮, 부응교: 柳淦, 부교리: 沈之漢, 부수찬: 金弼, 李正英, 27년 부응교: 金弘郁, 교리: 趙復陽, 李天基, 수찬: 洪處尹, 金弼.